

第214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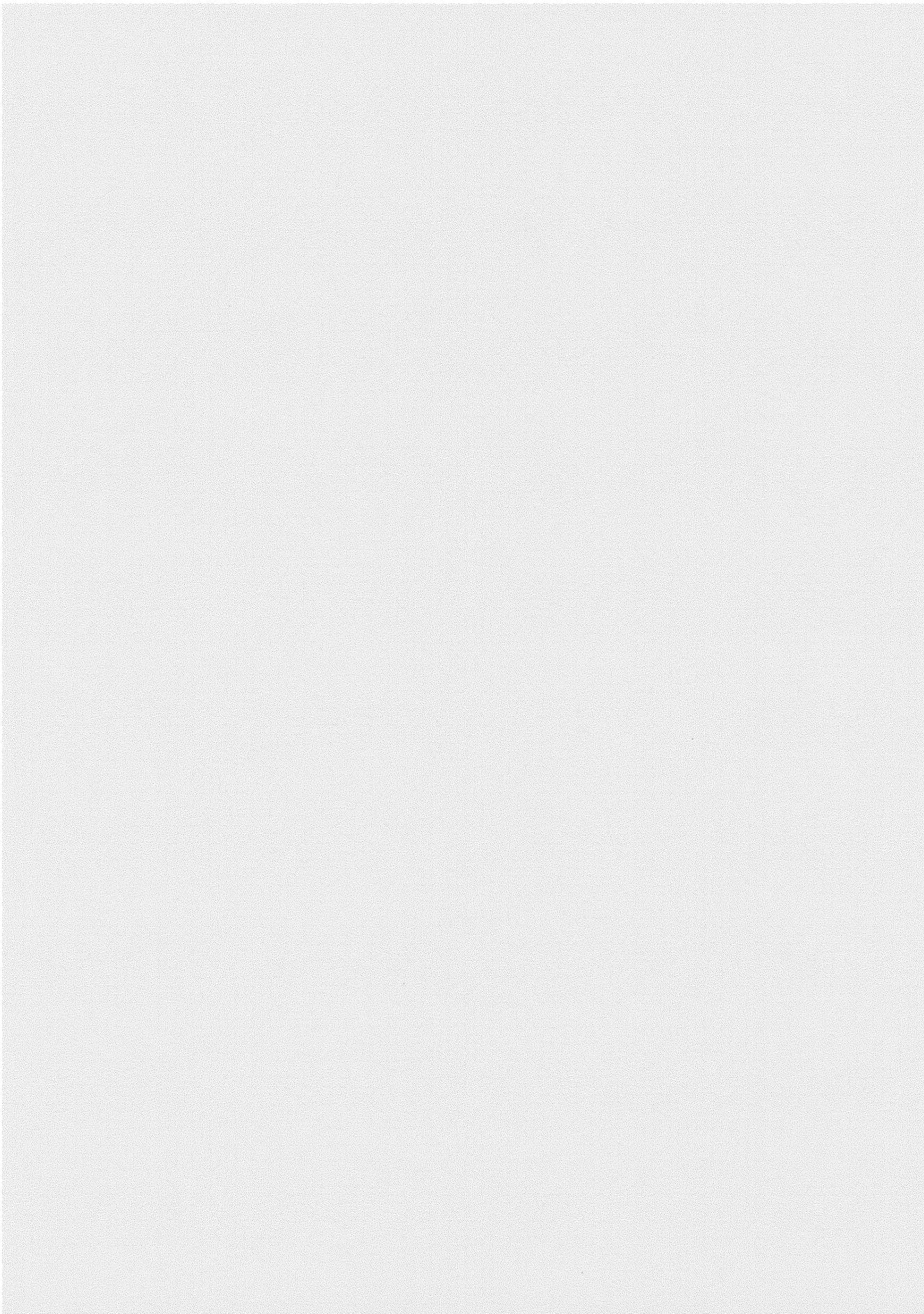
(2008.3.18. ~ 3.19.)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214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개회식	255
II. 제2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57
III. 부 록	
1. 의사일정안	263
2.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회의록	265
IV. 별 책 부 록	
▶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별책 1)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8년 3월 18일 (화요일) 11시 00분

開會式順(第214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신현영)

(11시 00분 개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회의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신현영

지금부터 제2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11시 02분 폐식)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자리에 앉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8년 3월 18일 (화요일) 11시 02분

議事日程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14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8년도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214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008년도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의장 제의)

(11시 02분 개의)

존경하는 성영용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의장 성영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3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습니다.

(간부 소개)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담당 장학관으로 재직하다 초등교육과장으로 발령된 권오삼 장학관입니다.

● 교육감 이기용

제천여고 교장으로 재직하다 중등교육

[제214회-제1차 본회의]

과장으로 발령된 신강수 장학관입니다. 우리 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담당 장학관으로 재직하다 교육정보화 과장으로 발령된 정진구 장학관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성영용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경과보고

● 의장 성영용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상황 등에 관한 보고가 있습니다.

● 의사과장 이학신

의사과장 이학신입니다.

임시회 소집요구 및 도의회 안건 처리 상황, 그리고 이번 회기 중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상황입니다.

2008년 3월 7일 김병우 교육위원 외 5인으로부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해 적용되는 종전 같은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지역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자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같은 날 제21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임시회에서 심의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한 안건의 처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13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한 충청북도교육청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교육협력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3월 14일 제268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2008년도 지역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성영용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214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1시 06분)

● 의장 성영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4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8일과 3월 19일, 2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 결정과 2008년도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처리하시고 3월 19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2008년도 지역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신 후 이번 임시회를 마치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14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2008년도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 고의건

(11시 07분)

● 의장 성영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제의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2008년도 지역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시고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지역교육청 현안 파악 및 의정활동 자료로 수집하고자 하는 것이며, 일시 및 대상기관은 3월 19일 11개 지역교육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은 제가 제의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1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정무 위원님과곽정수 위원님께서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제214회-제1차 본회의]

0 출석위원 : 6명

의장 성영용, 부의장곽정수,
위원 김병우, 김부웅, 이상일, 정무.

0 출석공무원 : 15명

교육감 이기용, 부교육감 김효겸, 교육국장 김종근,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혁신복지담당관 황용수,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과학산업교육과장 김경숙,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총무과장 김용환,
기획관리과장 연희지, 학교운영지원과장 구명희,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회의록(별첨 2)

제2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8. 3. .

의 장 성 영 용 成永龍

위 원 정 무 鄭 武

위 원 곽 정 수 郭 正 洙

의사국장 김 장 한 金 張 翰

(별첨 1)

의 사 일 정 (안)

제2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2008. 3. 18. ~ 3. 19.(2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3월 18일(화) 11:00	<input type="checkbox"/> 개 회 식 [제1차 본회의] 1. 제2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8. 3. 18. ~ 3. 19. (2일간) 2. 2008년도 지역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input type="checkbox"/> 산 회	
3월 19일(수) 10:00~	<input type="checkbox"/> 2008년도 지역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본회의휴회

(별첨 2)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회의록

·일 시 : 2008. 3. 19.(수) 10:00

·장 소 : 소위원회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10시 00분 회의시작)

● 의사담당 신현영

지금부터 지역교육청의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오늘 업무보고는 오전에 청주교육청을 비롯한 5개 지역교육청, 오후에는 충주교육청을 비롯한 6개 지역교육청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청주교육청 등 5개 지역교육청별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성영용

존경하는 동료 교육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청주교육청 안성배 교육장님, 청원교육청 김윤기 교육장님, 보은교육청 김중규 교육장님, 옥천교육청 조남수 교육장님, 영동교육청 정구석 교육장님!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중에도 주요업무 보고를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지역교육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지난 3월 1일자로 교육장의 중책을 맡으신 김윤기 교육장님과 김중규 교육장님, 조남수 교육장님께는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과 2월에 개최된 임시회 회기중 도교육청과 직속기관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지역교육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고를 하게 되는 주요업무계획은 금번 1년간의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 계획이 총 집결되어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그 내용 및 기관별 현황과 현안 문제 등을 파악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회에 교육위원님과 교육장님간에 진지하고 심도 있는 협의의 자리가 되어 충북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중심으로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석하신 교육장님을 대표하여 청주교육청 안성배 교육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사랑합니다.

충청북도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성영용 의장님, 그리고 교육 위원님 여러분!

새 봄의 기운이 온누리에 가득한 오늘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 충북교육은 모든 분야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저력으로 괄목상대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결실은 위원님들께서 교육에 대한 높은 안목 속에 매사 헌신적인 성원으로 격려해 주신 결과임에 지역교육청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되는 각 지역교육청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미래 한국 사회를 주도할 충북교육이 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 밑거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쪼록 올해도 우리 교육가족 모두는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알찬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성영용

안성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지역교육청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하실 순서는 청주교육청, 청원교육청, 보은교육청, 옥천교육청, 영동교육청 순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기관별 공통적인 사항은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요업무 및 특색사업 중심과 2006년과 2007년도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감사 및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10분 내외로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로 보고를 모두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순서는 위원님들의 신청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시간 여건상 위원님께서 1인당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청주교육청 안성배 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청, 청원교육청, 보은교육청, 옥천교육청, 영동교육청 순으로 업무 보고)

▶ 참 조 :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별책)

● 의장 성영용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경과됐습니다.

휴식시간을 가진 뒤에 11시 10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웅 위원 “11시에 하시죠.”)

괜찮으시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계속)

● 의장 성영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교육청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위원님들의 신청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정수 위원

교육위원 곽정수입니다.

금년 신학기 돼서 교육장님이 지금 세 분이 새로 발령을 받으셨고, 아마 신학기에 업무파악하기도 어려운데 또 리어설까지 해가면서 발표준비를 하셨다고 그래서 새로운 교육장님들의 자세에 감사를 드리

고요, 또 리어설을 통해서 업무파악이 조속히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실천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요즘 보편은 “국민을 섬기는” 이런 용어가 많이 쓰이고요, 섬긴다, 모신다, 또 국민을 두려워한다, 그런 용어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힘있는 자들의 이런 표현을 보면서 우리 교육감이나 교육장님들은 뭘 모셔야 할지 대상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남궁병원 남쪽에 건물 외벽에 보면 초 대형 선거용 걸개 그림이 있던데, 그것을 보니까 웃는 모습에 중앙정치 지망생이 서민의 한 노파의 발을 닦아주는 대형사진을 보면서 그 메시지를 음미해보려고 합니다.

낮은 곳에 임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겸손하고 가까운 이웃 머슴을 나타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권위적인 군림하는 오만과 편견에 싸여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수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손수 챙겨야 직성이 풀리는 과거의 지도자는 지위만 높은 상사이지 진정한 리더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계의 꽃이라고 모두가 선망하는 영광스러운 교육장의 임무 중의 하나는 걸개 그림에서 보듯이 묵묵히 소신과 책임을 다하는 아랫사람들에게 발이라도 닦아

줄 마음 준비도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교육청의 인사구호 “사랑합니다”를 진정으로 실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전년도 보고회에서 본 위원이 주요행사 및 업무를 월별로 취합하여 행사 캘린더를 만들도록 부탁을 드렸습시다만은 보고서를 보니까 캘린더가 나와 있는 교육청이 두 군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도교육청 캘린더를 제가 편집을 해 가지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아마 지금 교육장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을 겁니다. 또 지금 두 개 교육청에서 캘린더를 만들든 내용도 지금 복사를 해서 드렸습시다. 거기 보면 또 주요업무계획에 들어 있는 약어해설 그래서 청원교육청이나 이런 몇몇 교육청이 아주 친절하게 약어해설서가 들어 있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무슨 내용인지 간결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리고, 이런 업무용 캘린더를 삽입하면 돈 들인 거보다 효과가 더 높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내년도 업무계획서나 금년 2학기 행정감사 때 고려해 주면 고맙겠습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인수위원회 정책이 현 정부의 로드맵으로 정착이 돼 가는데 아마 대통령 공약사항이나 우리 이기용 교육감의 공약사항 중의 제일 첫 번째 들어갔던 게

아마 사교육비 경감, 그 다음에 영어마을 문제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유인물을 하나씩 드렸습시다.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나왔던 토론회 한 내용인데 그 러닝타임이 2시간 정도 넘어서 제가 한 세 번 정도 읽어보고 사실은 이해는 하는데 소화는 못시켰습시다. 이것이 새로운 우리 영어정책의 로드맵이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 참고하시고 새로운 앞으로의 미래 영어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VTR를 준비를 했습시다. 한번 DVD를 같이 시청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VD 시청 : 인수위주최-영어교육공청회)

지금 내용이 2시간 정도 가는 건데 지금 사실은 천세영 교수의 발제만 들으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한, 저번에 내가 러닝타임을 재보니까 20분 40초가 걸려서 지금 회의진행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것 같아서 중단을 했습시다.

이것이 끝난 다음에 대학교수, 또 현장의 영어 담당하는 교사들, 또 현장의 영어 담당하는 장학사들, 현장에서 직접 영어를 운영하던 학교의 교장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 등등 이번에 이 내용에 관해서 깊은 토론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우리 교사들의 자세도 상당히 부형 측에서 상당히 꾸짖는 문제가 나왔습시다. 그 내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용 중에 대표적인 게 “너희들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애” 하는 그런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흥분하는 학부모의 얘기도 저기 나왔었고, 또 초등과 중등의 영어교과서의 연결점이 초등의 도착적 행동이 나타난 다음에 중등이 집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순서적인 내용도 나왔고, 현재 대학교수들이 실제로 대학에서 영어로 강의를 해서 그것을 받은 교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도 나왔었는데요, 제가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새 정부의 영어교육에 대한 로드맵이 이렇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도 이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셔서 여기에 적절하게 대처 내지는 대응할 마음의 가짐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성영웅

곽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병우 위원

김병우 교육위원입니다.

시간이 빠듯해서 저는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몇 가지 소회를 말씀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내년부터는 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짚어보는 기회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매년 1월에 본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2,3월에 직속기관하고 지역교육청 보고를 듣고 있는데 지역교육청 사업이 본시 자체 특화사업을 제외하고는 도교육청 업무의 시·군 단위 실행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은 본청 계획부터 먼저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현재 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은 1월달에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과 양 국장님들, 그리고 두 담당관님들께 보고 듣는 걸로 그치고 질의를 통해 점검해볼 기회를 못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기가 번거로우면 보고까지만 거기서 하고 이후 우리 소회의실에 와서 질의 응답을 통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의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장님들께서 이번 보고를 위해서 계획서도 점검을 하시고 또 리어설까지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계획서를 보면서 느낀 점은 좀더 계획서를

꼼꼼하게 살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도교육청 계획서를 바탕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대로 베끼는 것은 너무 안일한 거 아닌가. 예를 들면 도교육청에서 계획에 간행물을 발간하겠다 이렇게 하면 시·군 단위에서는 발간하는 게 아니죠. 그것을 배포한다든지 활용한 다든지 하는 식으로 표현도 해야 되고, 같은 사업일지라도 표현을 그 시행단위에 맞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목표치까지 분청 것을 그대로 쓴 예가 있습니다. 이 점은 작년에 우리 김부웅 위원님께서 따끔하게 지적을 하셨던 문제인데 올해도 여전히 그런 예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 응답을 통해서 이따가 짚어 드리겠지만 솔직히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우리 위원회가 교정을 보는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인가 하는 그런 찻찻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문건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교육장님께서 유념을 하시고 이후에는 좀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육청간에 서로 본이 될만한 것은 공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주요업무계획서들은 교육청들끼리

서로 나눠 보시겠습니다만은 사업아이템이나 심지어는 계획서의 체제나 형식까지도 좀 본받을 것은 본받고 벤치마킹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눈에 모범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을 찾아서 다른 시·군에도 참고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청별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청주교육청부터 하되 공통으로 해당되는 부분들은 같이 여쭙겠습니다.

물론 같은 사업이라도 페이지가 다들 텐데 여타 교육청들도 함께 보실 수 있도록 과제 분류번호를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청 10쪽 1-1-1 사업들을 보니까 제목이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추진”인데요, 그 제목은 “수준별 이동”자를 빼고 ‘수준별 수업 확대 추진’으로 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이동수업은 수준별 교육과정 중에서 단계형 교과에만 해당됩니다. 수학, 영어. 그리고 심화보충형 교과는 학급 내에서 수준별 분단을 만들어 가지고 수준별 수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제목은 ‘이동’자를 빼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 밑에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하는 부분은 일단 단계형 교과에 대해서만으로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진천교육청이 그 표현을 잘 했

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주교육청은요 관내 31개교 모든 학교에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도록 권장을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다른 시·군들은 1개 내지 5개 정도의 선도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하셨더군요. 청주 교육장님, 모든 학교에 수준별 이동수업을 다 하도록 확대를 하실 겁니까?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청주 교육장 안성배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교과는 다 할 수 없습니다만은 31개 학교에 수준별 수업은 모두가 실시하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단계형 교과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준별 수업은 지금 우리 김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급 내에서 수준별로 운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수준별 수업이 2개 반이나 3개 반으로 편성이 돼서 학급을 이동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이라는 말을 완전히 뺄 수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김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영어, 수학에 대해서만 이동수업을 원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른 과목은 이동수업이 아니라는 거죠. 수준별 수업을 하되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과는 학급 내에서 수준별 분단을 만들어서 수준별 수업을 하는 거죠.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추가 되는 것이 물론 영어와 수학입니다.

● 김병우 위원

원래 교육과정이 그래요. 그거 한번 살펴보고요.....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그리고 이제는 단계형도 단계형으로만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져서 이제는 수준별도 단계형 수준별.....

● 김병우 위원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동수업을 할 때도 금년에 새 정부에서는 상하 2개 그룹이 아니라 4개 그룹으로 만들어서 이동수업을 하도록 권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수업시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금년에 선도학교들에서는 강사를 지원해가지고, 물론 강사비를 지원해서 좀더 수준별 분반을 좀더 세밀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무작정 이렇게 확대하면 청주시내 같은 경우는 인력충원이

엄청나게 소요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청주시내는 금년에 선도학교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 학교들의 31개 교에 모두 이동수업을 권장하시겠다고 하니까 일단 그런 부분을 여쭙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2쪽, 13쪽에 있는 1-2-1, 1-2-2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업스타를 발굴해서 활용하는 부분을 하시는데 도교육청 계획보다는 훨씬 활용의 방식을 분명히 해 놓아서 좋게 봤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수업스타를 발굴해서 일반화하겠다는 막연한 계획을 갖고 있던데요, 예를 들면 수업결과물들을 또는 계획서 같은 것들을 홈페이지에 탑재해서 공유한다는 식으로만 이렇게 했는데 청주교육청은 으뜸수업도 공개하고, 또 그 우수교사를 장학요원으로 활용하겠다고, 이렇게 활용의 방식과 범위를 분명히 한 것 같아서, 모범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1-2-3 각종 연구회 운영 활성화 부분인데요 도교육청 계획에 보면 교과교육연구회하고 수업개선연구회가 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청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15쪽이에요 이것을 담당도 초등교육과만 하고, 계획에도 보니까 중등은 없네요.

교육장님,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청주 교육장 안성배입니다.

저희들 청주교육청은 초등교과교육연구회가 4개 연구회가 운영이 되는데 교과연구회는 이것이 도교육청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런데 자체 지정하는 연구회에 대해서는 150만원 준다고까지 해 놓으셨잖아요.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지금 교과연구회 초등에 연구회별로 150만원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그래서 초등에만 지금 저희들은 4개를 그렇게.....

● 김병우 위원

그럼 중등은 없다는 말씀이죠?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그렇습니다.

● 김병우 위원

특별한 취지가 있습니까?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여기는 특별한 저기보다도 이것은 저희들이 중등에 교과별 연구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지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150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정해서 그것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학교만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학교는 선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 김병우 위원

다른 시·군도 중등은 없는 게 아닌데 하여튼 청주는 초등 중심으로 했다는 말 씀이죠?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중학교는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빠졌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 다음 17쪽 1-3-1 각종 학력평가 실시 및 결과분석 환류 부분인데요, 이것은 예년에 실시해오던 것인데다가 작년 9월달에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학력평가가 집중이 돼 있습니다. 물론 교육장님들이야 따를 수 없겠지만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3월에도 이미 학력고사 문제로 한번 논란이 있었지만은 2학기에 보면은 다른 교육청들에서도 1-3-1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 9월에 해마다 해오던 도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교육부에서 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또 있습니다. 12월달에는 작년 9월에 교육감협의회에서 정한 전국연합학력평가가 또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원래 정기고사로 10월달에 2학기 중간고사, 12월달에 학년말 고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

과 낙달만에 다섯 번의 시험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한테 시험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어디가 르칠 시간이나 나오겠나 하는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가뜩이나 2학기는, 뭐 잘 아시겠지만 기간도 짧은 데다가 온갖 행사가 또 많고 이래서 진도 나가기도 어려운 학기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시험만 치다가 판 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는데, 더더구나 새 정부 들어서 이제 아이들간 학교간 성적비교까지 하겠다, 공개까지 하겠다 이려고 있는데, 정말 전례로 봐서나 외국의 사례를 봐서도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의회에서 심야 학원교습시간 규제 철폐를 주도했던 분이 “일하다가 죽은 어른은 봤어도 공부하다 죽은 학생은 못 봤다”라고 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었는데요, 20년 전에 성적 비관으로 1년에 수십 명의 아이들이 자살을 했던 기억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장님들 의견을 좀 듣고 싶기도 한데, 사실 이런 자리에서 솔직한 토로가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저의 우려를 전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쪽에 4-1-3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사이버 모우미라고 나

오는데, 사이버 모우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특정 기업의 상품명입니다. 자료집계 프로그램 이름이죠. 이것은 도교육청 계획서부터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종래의 직접 공문수발을 통해서 모으던 그런 통계나 또는 그런 문서 시달 같은 것을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사이버 모우미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보통명칭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자료집계프로그램(사이버 모우미)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7쪽에 4-1-6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공간이 나오는데 아까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청주교육청은 새 교육청을 5월달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공 입주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새 교육청 청사 내에도 혹시 주민들 편의시설이 어떤 게 지금 계획 중이신가요?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청주교육청 안성배입니다.

지금 새 교육청에도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요구하는 도서관이나 수영장은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 이것을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아래층은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꾸미려고 하고 있고, 2층에는 정보실

이 2개인데, 그 중의 한 곳은 주민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도서실로 꾸밀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옥상에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테니스장이나 거기 체육관은 주민들이 배드민턴이나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는 활용공간으로 개방을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체육관도 계획이 돼 있습니까?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강당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맹꽁이 서식지를 요구해 왔는데 맹꽁이가 알을 낳고 서식할 수 있는 습식공간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쪽에 4-2-6 교육경비 안정적 확보 추진 관련해서, 2007년도의 지원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청주시청에서 지원된 것이.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청주 교육장 안성배입니다.

2007년도 38억 7,93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 전년도에 비해서는 늘어난 겁니까, 줄어든 겁니까?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죄송합니다만 제가 2006년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것을 왜 여쭙는가 하면은 작년도에 줄어들었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줄어들었다면 왜 줄어들었을까. 다른 시·군은 늘어나고 있는데 청주시가 왜 줄어들었는지. 그래서 이제 여기 제목이 “유치 강화” 이렇게 하셨기에 만약에 그 여부를 체크를 해 주시고 이후에라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2쪽에 실용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이 부분을 보니까 이것은 도교육청 계획에 비해서는 좀 용어를 바꿨어요. 도교육청 계획은 성과중심 조직문화 정착이라고 해 놔는데, 청주교육청은 이것을 실용중심이라고 바꿨는데 특별한 취지가 있습니까?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우선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의 내실화를 우선은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면에 착안을 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새 정부의 어떤 국정지표인 창의적인 실용정신하고는 상관없습니까? 그것을 반영한 것인가요?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글쎄요, 그것을 반영했다기보다 이것은

저희들이 얘기한 것처럼 생활 속에서의 실용쪽을 많이 생각을 했고, 물론 그런 것을 영향을 안 받은 것은 아니겠죠.

● **김병우 위원**

그리고 거기 보니까 도교육청 계획이나 타 시·군 계획에 비해서는 유독 성과관리 시스템이나 직무관리계약제나 직무관리시스템이나 교육정책품질관리 이런 부분들을 빼놨어요. 거기에도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하시기는 하실 건가요?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하기는 해야죠. 그런데 이것은 누구나다 함께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 **김병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쪽에 학교 잔디운동장 대상이 세광고등학교로 돼 있는데, 세광고등학교면 청주시 관할은 아니지 않나요?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이것은 청주시를 함께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체육진흥공단 그리고 청주시청, 여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청주시 초·중·고 가운데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최종 확정을 지어서 체육진흥공단으로 올라가서 체육진흥공단에서 최종 확정을 짓는 겁니다.

● **김병우 위원**

고등학교에 짓기는 하지만은 대응투자가 시교육청으로 왔기 때문에 시교육청에

서.....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시교육청에서 맨처음에 작업을 해서 올리도록, 신청 학교도 저희들이 맨처음 작업을 해서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런데 시교육청에서 하필 중학교를 두고 고등학교를 올렸나요?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이것은 거기 심사위원들이나 또 들어온 가운데서 우리 청주시 체육발전이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해서 이것은 심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장 단독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김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주시교육청은 다른 시·군 교육청하고 달리 특화사업을 특화사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역점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왜 그랬을까를 나름대로 보면서 지역색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과제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처럼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안돼 있는 것이, 혹시 청주시는 지역 특색이 없어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우선 우리

청주교육청에서 우선 청주교육을 위해서 우선 먼저 금년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은 이것을 역점을 두어서 할 사업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화사업보다는 역점사업으로 표현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들은 조금 더 질문을 약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청원 교육장님, 혹시 처음 이제 신임이신데 금년 계획에 자신의 경영방침을 반영한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 **청원교육청 교육장 김윤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아마 다른 시·군 교육장님들도 대체로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 계획에 반영될 걸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53쪽에 5-2-2에 보니까 거기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지원에 죽림이 들어가 있는데 죽림이 관할 학교인가요?

(관계관 석에서 “죽림유치원이에요”)

아, 죽림유치원이에요? 학교 병설유치원이 아니고.

● **청원교육청 교육장 김윤기**

예

● **김병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59쪽에 역점사업 중에 아까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유치원 공동교육 활동은 제천과 더불어서 아주 특색 있는 그런 효과가 기대되는 그런 사업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65쪽에 용어해설 중에 병원 학교가 있는데, 관내에 병원학교가 혹시 있습니까? 여기 왜 들어가 있죠?

● 청원교육청 교육장 김윤기

용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있는 거하고 용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김병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청원교육청 교육장 김윤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비스 정신이 너무 강해서 죄송합니다.

● 김병우 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 보은교육청 보니까 그 형식면에서 용어해설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보기 좋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시·군에서도 참고할만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중에서 19쪽의 용어해설 중에 28번 각주가 되어 있는 챗트 이 용어는요 성가나 합창을 챗트라고 하긴 하지만 영어교육에서 말하는 챗트는 성가나 합창이 아니고 울동을 섞은 곡조를 붙여서 아이들 익히기 쉽게 하는 그런 것을 챗트라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6쪽에 도서확충 부분에

학교당 100만원씩 이렇게 계획이 돼 있던데, 도교육청에서 올해 107개 학교에 대해서 500만원씩 장서확충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관내의 모든 학교에 100만원씩을 별도로 주는 건가요?

● 보은교육청 관리과장 김영구

보은교육청 관리과장 김영구입니다.

모든 학교에 자체 재원으로 10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 김병우 위원

이것은 특별한 관심이라고 보여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옥천교육청 16쪽에 교수-학습지원센터 부분을 보면, 물론 도교육청에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가 있고, 또 학교에도 교수학습도움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옥천교육청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단위별로 전부 도움센터 지원센터가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자료를 정선해서 통합으로 지원센터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점사업 중에 “OK 에듀옥천” 거기 보니까 결혼이민자 주부를 활용한 이런 게 특색적으로 보이는데 혹시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장님.

● 옥천교육청 교육장 조남수

6명입니다.

● 김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효과를 기대하면서 하시고 계신데
원어민들하고 차이는 없습니까?

● 옥천교육청 교육장 조남수

차이가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 옥천교육청 교육장 조남수

예

● 김병우 위원

그것은 나중에 여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동교육청 11쪽 좀 봐주십시
오.

11쪽에 1-2-3 연구회 운영 활성화, 보
니까 이 연구회 수가 많습니까? 제가 보
니까 이게 도교육청 계획하고 똑같습니
다. 그죠?

● 영동교육청 교육장 정구석

예

● 김병우 위원

이것은 정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 영동교육청 교육장 정구석

예, 정정하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 다음에, 다른 건 생략하고요 53쪽에
노력중점에 초·중 전학교 원어민 보조교
사 확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원어민 보조교사가 5명이라고 하셨
죠? 확보된 것이.

● 영동교육청 교육장 정구석

예

● 김병우 위원

5명인데 초·중 전학교에, 제가 보기에
는 관내에 24개 학교인데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 영동교육청 교육장 정구석

순회지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순회지도, 학교별로 배치하거나. 그 선
생님들이 순회를 하면서 어떤 시간에 투
입이 되나요?

● 영동교육청 교육장 정구석

정규수업시간에도 가고, 야간에도 하
고, 방과후에도 합니다.

● 김병우 위원

야간, 여기도 보니까 야간에도 수업
을.....

● 영동교육청 교육장 정구석

야간에도 하고 방과후에도 하고.....

● 김병우 위원

그러면 5명이 정규수업에도 투입되고
또 24개 학교에 야간에도 투입되고, 여기
보니까 영어선생님들에게도 하시고, 너무
업무가 과중하지 않습니까?

● 영동교육청 교육장 정구석

그래서 다 한 학교에 1명을 배치 못해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서 학기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 김병우 위원

좀 전에 옥천 사례와 관련해서 영동 관 내에도 혹시 원어민이라고 부를 정도는 아니지만 혹시 방과후 활동이라도 지원할 만한 그런 어떤 결혼이민자 주부 활용의 가능성은 없는가.

● 영동교육청 교육장 정구석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활동으로 자체적으로.....

● 김병우 위원

원어민과 별도로?

● 영동교육청 교육장 정구석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쪽에 보니까 노력중점에도 어르신들의 지혜사랑이 함께 하는 교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어디엔가 교육인적자원 연수 이래가지고 퇴직하신 교육자들을 이렇게 모시고 하는 행사 이런 것들이 있던데, 이것은 지역 특색을 살린 나름대로 교육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봤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끌은 것 같은데,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성영웅

김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시간은 촉박하긴 하지만 10분 쉬었다가, 또 질문 내용들이 다양하게 나왔기 때문에 뒤에 질문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한 10분 쉬도록 하죠.

12시 0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5분 회의계속)

● 의장 성영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부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 김부웅입니다.

직선제 교육감 탄생 이후 처음 열리는 주요업무보고회에서 교육장님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보고회의 성격이 감시와 견제라기 보다는 새 학년도의 업무를 파악하고 또 교육활동에 대한 교육청간의 상호 비교의 자리라고 생각해서 저도 11개 시·군 교육청의 업무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바 저의 경험적인 이런 개인 의견을 말씀드릴테니까 수정 보완 내지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준비를 했습니다만

시간을 또 제약해 주시고, 또 앞에서 많이 하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제가 세심하게 이것저것 살폈더니 께 께하다는 뒷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고서를 이렇게 검토하면서 그래도 많이 개선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내심 교육장님들께 감사한 마음도 가져왔습니다.

청주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교육청은 충북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행정부서이고, 또 9만 7,000명 정도의 학생을 거느린, 그래서 바람 잘날 없는 곳이지만 우리 안성배 교육장님이 소신있게 경영하시고 또 능수능란한 문제 대응력으로 모처럼 지난해에 조용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각 교육청들이 다 공통된 것입니다만 아무래도 청주교육청에 집중 질의가 될 것 같아서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11개 시·군이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새로운 공교육의 희망, 방과후 학교 확대 운영, 이렇게 사업목표가 돼 있는데 사업내용도 가만히 보니까 전부가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한 것만 잡혀 있으니, 자칫 정규시간보다 방과후 학교 운영에 더 힘을 쏟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도 있을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청주 교육장 안성배입니다.

물론 정규수업이 주가 되고 그 다음 방과후 학교는 말 그대로 정규수업이 끝난 뒤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이것은 방과후 학교에 대한 하나의 교육활동의 일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부응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19쪽을 봐주시면요 2-1-1에서 거기 중국과 일본의 학교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다음 항목에서는 외국어 교육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어 교육의 강화 내용을 전부 보니까 모두가 영어교육에 관한 내용뿐입니다. 관내에 혹시 다국적 외국어 지도 능력 있는 자원을 조사해본 적이 있는지. 그래서 그 외국어교육을 정말 여러 나라의 다국적 언어를 교육하든지, 아니면 이참에 사업명을 아예 영어교육 강화로 바꾸는 게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청주 교육장 안성배입니다.

지금 말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영어가 국제어로서의 위상이 상당히 강한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정보의 80%가 영어로 전달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생각할 때 꼭 영어 뿐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이런 제2의 외국어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

실입니다.

● 김부웅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다국적의 자원을 조사 해서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22쪽, 23쪽을 보니까 제가 지난해에 외래어나 외국어 대신 쓸 수 있는 우리말을 개발해보자고 했고, 여기에 김병우 위원님도 동조를 했었는데, 거기를 보니까 SSS(Small Scale Science: 소규모 과학실험), 문화벨트, 프로그램코스, 발명센터, WISE(Woman Into Science and Engineering: 과학, 기술분야의 여성 지원 프로그램), 유레카, 페스티벌, U-러닝, 인력풀, 장비B/S, ICT, 정보올림피아드, 차단시스템, 프로젝션, 사이버학습, 교육용소스트웨어, 참 실로 아주 어지러울 정도의 외래어가 남발이 되고 있는데,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개선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청주 교육장 안성배입니다.

여기 사실상 사용한 이 용어들은 이미 이것은 그러한 신조어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이미 이 용어가 그렇게 이미 쓰여져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만 새롭게 바꾸기는 어려웠습니다.

● 김부웅 위원

노후 PC하고 노후 컴퓨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거 같이 있는데.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노후 PC와 노후 컴퓨터는 사실상 똑같습니다.

● 김부웅 위원

같은 거죠? 이게 얘기를 일관성 없이 막 나오기 때문에 제가 드린 겁니다.

25쪽으로 가겠습니다.

감성교육이 나오는데 감성교육에서는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게 가족과의 따뜻한 대화, 친구와의 우정이 든 놀이, 또는 이웃과의 협력 봉사 같은 덕목이 추가 되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청주 교육장 안성배입니다.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부웅 위원

안성배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청원교육청으로 가겠습니다.

청원교육청은 김윤기 교육장님이 부임 하셔서 아주 의욕적으로 독특한 사업을 많이 계획하고 있대요. 특히 청원의 맑은 근원을 교육하겠다는 청원이 맑음이죠-계획이 돋보였습니다.

15쪽 아래 유치원 장학에서 유치원 사이버장학 7개 마당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다른 교육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대요.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주실까요?

● **청원교육청 교육장 김윤기**

청원 교육장 김윤기입니다.

유치원 사이버 장학 운영에서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유치원 장학에 유치원 교육마당이 있고요, 동시마을이 있어요. 사이버 장학 활성화에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에 음성에 제가 근무할 때도 사이버 장학을 제가 직접 했습니다.

● **김부웅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유아교육계획이 치밀하게 사업 속에 잘 들어 있는 부분이 청원교육청의 유아교육 부분입니다.

칭찬 좀 해 주세요.

● **청원교육청 교육장 김윤기**

감사합니다.

● **김부웅 위원**

26쪽에 보면은 공무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가만히 보니까 도교육청 계획을 소개한 것 같아요. 그렇죠? 청원교육청 자체 거 아닙니다, 그 내용으로 봐서는.

● **청원교육청 교육장 김윤기**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부웅 위원**

됐습니다, 읽어보면 아는 거니까.

개발도상국 정보화기기 지원도 다른 곳에 없는 사업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 **청원교육청 교육장 김윤기**

도교육청에서 인도네시아에 불용 PC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해마다 불용 PC를 수거해서 도 사업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 **김부웅 위원**

가난한 나라 보내는 거.

● **청원교육청 교육장 김윤기**

예

● **김부웅 위원**

고맙습니다.

46쪽에 아래쪽을 보시면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기동감찰반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거부감이 생겨요. 적어도 맑은 고을에서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기동감찰반을 운영해야 할만큼 청렴에 문제가 있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청원교육청 교육장 김윤기**

행정과 기동감찰반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도내 모든 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교육청과 연계 차원에서 동일한 용어를 사용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부웅 위원**

그래서 도교육청도 기동감찰반이라는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용어를 바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원군 김윤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은교육청입니다.

보은교육청은 전국 정보화대회를 석권했고, 또 소년체전에 금메달 등 많은 실적을 작년도에 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담당자를 업무계획 담당자를 명시한 점, 또 예산을 기록한 점, 용어해설을 세밀하게 해 주신 점이 잘된 계획이었다고 말씀드리면서 김종규 교육장님, 직원들한테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책 읽는 운동 목표를 보니까 초등이 70권, 중등이 30권으로 돼 있는데 초등학교가 중학교보다 목표가 더 많이 잡혀 있는데 중학교가 더 많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보은교육청 교육장 김종규

잠깐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학교는 워낙 초등학교보다 수업시수라든가 이런 것이 더 많고, 또 아울러서 초등학교 학생들보다 중학교 학생들이 읽는 책의 분량이라든가 정도가 높기 때문에 중학교보다 초등학생이 많은.....

● 김부웅 위원

권수로 생각할 것이 아니다?

● 보은교육청 교육장 김종규

예

● 김부웅 위원

45쪽을 봐주세요.

성과관리의무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4급 이상 공무원은 교육장이 담당하고 5급은 관리과장이 담당한다고 돼 있는데, 보은교육청에 4급이 없잖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 보은교육청 교육장 김종규

답변드리겠습니다.

4급 담당 이상 공무원을 교육장이 담당하는 게 아니라 교육장이 대상자라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 김부웅 위원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다른 교육청은 아니더라고요.

그밖에도 정일품 선비교육, 이웃사촌 맺어주기, 속리산 자랑대회 등 참 권장할 사업이 많이 계획돼 있었습니다.

김종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옥천교육청입니다.

옥천교육청도 소년체전에서 양궁부 석권을 비롯해서 에듀테인먼트 대회 대상, 전국 정보화 대회 1등 등 아주 눈부신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24쪽 교원의 전문성 신장 업무에서 인력풀 구성 및 활용 계획이 50종 150명인데 가능할까요?

● 옥천교육청 교육장 조남수

옥천 교육장 조남수입니다.

도교육청에서 구성된 상담 전문 인력풀 50직종 150명이 있는데 우리는 그 인력풀을 이렇게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 김부웅 위원

활용하는 것으로 기술이 돼야겠죠?

● 옥천교육청 교육장 조남수

예

● 김부웅 위원

이것은 도의 기술이 그대로 된 겁니다.

● 옥천교육청 교육장 조남수

예, 그렇습니다.

● 김부웅 위원

30쪽, 사랑의 대안교육에서도요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다섯 군데 지정한다고 했는데 청주, 청원, 진천은 도교육청 지정기관을 활용한다고 써 있더라구요. 이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옥천교육청 교육장 조남수

예

● 김부웅 위원

36쪽 아래 고객행동엽서 해피카드라는 게 있는데 음성은 200명, 제천은 300명, 옥천은 100명으로 계획이 돼 있더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 옥천교육청 교육장 조남수

옥천교육청 조남수입니다.

고객행복엽서제는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뜻입니다. 고객의 요구는 여기서 말씀드리

면 설문, 그래서 교육청을 방문한 민원관련 고객 100명 예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부웅 위원

37쪽에 보면 청렴계약제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특수조건 및 금품수수, 향응수수 등 금지사항을 명시해서 계약한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스스로 우리 불신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전국 제일의 청렴도를 자랑한 게 엇그제인데 벌써 이런 정도로 비리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 옥천교육청 교육장 조남수

맞습니다.

● 김부웅 위원

옥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옥천교육청 교육장 조남수

감사합니다.

● 김부웅 위원

영동교육청은 감고을 사랑, 특화사업 등 돋보이는 사업이 많이 있으며, 차별하게 발전하는 곳입니다.

9쪽을 보면 신규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목표로 내세웠는데 다른 10개 교육청보다 조금 다르게 이 신규교사에 대한 역점을 뒀다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 영동교육청 교육장 정구석

영동 교육장 청구석입니다.

신규교사가 비교적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점사업으로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 김부웅 위원

다른 교육청에서 답변하다보니까 영동 교육청은 질문사항이 다 중복이 돼 있네요.

39쪽을 봐주시면요 S-ppm 교육정책품질 관리라는 이런 항목이 있는데 이 용어가 대기업에서 불량률을 줄이는, 즉 100만개 중에서도 불량률이 없어야 된다, 제로, 이런 건데 이 교육정책에 100만개쯤 되는 정책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과장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돼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쳐야 되겠다는, 도에서 나왔어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섯 분의 교육장님들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보다 아주 숙련되고 다듬어진 체계의 업무계획서 작성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첨언을 드린다면 아직도 도교육청 사업인지 지역교육청 사업인지 불분명한 나열식 사업 책정이 되어 있고, 외래어나 외국어가 남용돼 있으며, 지역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특화사업이 부재됩니다. 또 사업추진자가 불분명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본으로 인쇄될 때는 제 말을 참고해서 더욱

알찬 계획이 일선 학교에 전달되도록하기를 바라면서 덧붙여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건데요 지역 학교의 행사 때 교장선생님들의 예우 문제를 또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제가 한 3주 됐습니다. 행사 참석했더니 여전히 자모회장, 예비군중대장, 우체국장, 모두 다 소개하면서 거기 참석한 교장선생님들 소개 안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올라가서 전부 물어서 소개를 하는데, 이것은 교육감님에 대한 무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소개도 못할 자리라면 초청도 하지 말고, 또 교장선생님들이 바쁜 시간 내서 행사 참여할 때는 소개도 못 받을 자리는 가지 말자 이겁니다. 그것 좀 지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몇 개 교육청에서는 교육위원님들의 현지 방문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그 교육위원님들이 바쁜 시간 내서 현지 방문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몽땅 다 나가서 현지를 방문해서 거기서 의견을 제시하고 또 현장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애를 쓰시는데, 거기서 나왔던 얘기하고 나중에 추진되는 것을 보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때는 불쾌감까지 생긴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교육위원들이 거기 바쁘는데 왜 나갔

어,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물론 사정이야 있겠지요. 그래도 사정이 있으면 사전 조율로 이런 것들이 원만히 해결돼 나가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뭘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짝 위축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다섯 분 교육장님들 고맙습니다.

말씀 줄이겠습니다.

● 의장 성영웅

김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수웅 위원

교육장님들의 철학과 비전이 담겨 있는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과 비례한다고 그러는데 시·군 교육의 질은 교육장님과 비례하지 않겠는가. 여기 주어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서 금년 학년도에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한 분 한 분 묻는 게 아니라 저는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필요한 부분을 한 분씩 여쭙보겠습니다.

먼저 이 타이틀을 쪽 보니까 교육장님들의 철학이 다 나와 있어요, 이 앞에 보면. 청주는 꿈을 키우는 희망, 또 청원은

꿈을 실현하는 조화로운 청원, 그 다음에 보은은 미래를 주도할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을 위한 보은, 그 다음에 옥천은 미래를 여는, 영동은 근본을 이어가는, 이래서 얼른 봐도 영동은 근본을 이어간다고 하니까 아까 설명할 때 나왔던 국악을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전통을 잇는 그런 것들이 짐작으로 미루어 가는데요, 이 주요업무 속을 이렇게 보면은 담당자 표시를 어느 시·군이나 거의 다 했어요. 청주시교육청은 담당 주무과만 표시했고요, 또 청원, 보은, 옥천은 담당 주무자가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실명제 차원에서 좋은 착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실명으로 표시한 데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영동은 담당자 표시가 없어요. 이것도 이런 기회에, 아까 김부웅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타 시·군간에 정보를 나누어서 좋은 쪽으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용어해설도 보은이 칭찬을 많이 받으셨는데, 작년에 단양 한 곳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다 돼 있는데 영동은 어떻습니까? 용어해설이 안 돼 있나요? 제가 잘못 봤나?

● 영동교육청 교육장 정구석

안 돼 있습니다.

● 서수웅 위원

다 돼 있는데 위치가 조금씩 다르고, 별첨으로 했는데, 작년에 단양이 별첨으로 했을 칭찬을 받았는데 올해 것을 받아 보니까 보은 것이 아주 눈에 띄네요, 정말로. 보기도 좋고. 이런 것도 잘된 쪽으로 자꾸 통일돼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행사계획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진천하고 단양은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독서지도가 똑같아요. 독서가 사람 팔자를 바꾸는 여섯 개 항목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느 책에 보니까. 독서가 중요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청주가 아침 독서운동을 해가지고 아주 대표적 사업으로 나와 있었는데,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2070, 2030이 청주 보은입니다. 하루에 20분씩 아침에 책을 읽어서 1년에 초등학교 70권, 중학교 30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를 더 조금 잡았다고 그러는데 나머지는 거의 다 1570, 1530이예요. 15분 동안 읽어서 70권 읽고 30권 읽겠다는 건데 여기 어찌 보면 모양을 갖춘 통일성이 너무 기계적이다. 왜 이게 돋보였을까요. 제천은 이렇게 써 있어요. “사제동행 10분 아침 독서” 이렇게만 써 있는데 그게 더 와 닿더라고요. 이게 작년에 청주교육청에서 하나까... 아니면 이게 도교육청에서 혹시 나갔나요? 도교육청에서 이런 용어가 나간 적이 있습니

까?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나간 적이 없습니다. 맨처음 청주교육청에서 시작이 돼서 이것이 번져간 건데.....

● 서수웅 위원

그래서 그게 좋다고 해서 한 모양인데, 물론 이것은 지향이죠, 지향. 그죠? 70권, 30권 읽히겠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 어때요 영동 교육장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본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70권, 중학교 30권 책을 읽히겠다, 이렇게 지향하는 목표다.....

● 영동교육청 교육장 정구석

목표로.....

● 서수웅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괴산은 2020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감사 얘기가 나왔는데요, 감사실적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청주 오해 마시고요, 전부 똑같은데 청주 교육장님한테 여쭙습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고제를, 감사예고제를, 작년 실적입니다, 감사예고제를 24교 해서 현지 조치 18교 30건 했다, 그러면 현지 조치가 아닌 여섯 개 학교는 어떤 조치 내용을 한 건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24교 중에서 18교만 현지 조치하고, 나머

지는 어떻게 했는지 안 나왔는데. 실적에.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실적은 제가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은.....

● **서수웅 위원**

혹시 부담스러운 조치를 한 겁니까?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현지 조치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주의나.....

● **서수웅 위원**

제가 그걸 따져 묻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작년부터 지역교육청 다니면서 제가 요구한 게 있어요. 거기 제목을 보면 반드시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감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감사의 내실화를 통한 신뢰행정 구현, 각 시·군 공히 그렇게 써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써 있으면서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지도 예방 중심의 행정감사 실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도 예방이라고 한다면 범법성이 있거나 의도적으로 저지른 일이 아니라면 가능하면 처리내용 중에 우수사례 발굴 표창을 했다던지, 격려했다던지, 이런 내용이 결과로 나타나면 우리 교육가족들이 볼 때 ‘아, 역시 교육계는 뭔가 다르구나’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렸기 때문에 올해 제가 각 시·군 다 봤더니 그런 상찬한

내용은 없고, 청주시교육청 또 예를 듭니다. 12월 중에 1교 2명을 감사결과 표창하겠다고 계획이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꼭 1교 해서 2명만 한다고 책정해 놓으면 잘한 사람 순서가 죽 나오면 1등 학교만 준다는 얘기 아니냐. 잘한 내용이 있으면 두 학교면 어떻게 다섯 학교면 어떠냐. 그렇게 한번 사고를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공감하신다면 교육장님들, 주요업무계획을 금년도에 추진하실 때 꼭 감사하면 적발해서 주의 경고를 줘야 된다, 이런 사고 관념을 깨고, 교육장님 결정하실 때 ‘아, 이 학교는 잘 했구나’ 이렇게 결제하실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 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초기본학습 부진학생 제로화를 전부 추진하고 있어요, 제로화. 이것도 우리 솔직히 현장에서 30년, 40년 근무했지만 기초기본학습 부진학생 제로라는 것은 희망사항이지 될 수가 없지 않습니다까? 또 사교육비 제로화, 이것도 교육감님 선거 때 공약이나 되는 거지 이거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다면 이 부진학생 제로화 운동을 다 같이 목표점으로 삼되, 현장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부진학생 지도수당을 학교회계로 편성해서 주고 있죠? 교육장님, 아시고 계시죠? 부진학생 지도수당 주잡

아요. 그런데 어느 학교는 갔더니 교장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학교는 그 지도교사를 해서 수당을 타라니까 영안 타가서, 왜 안 받느냐고 그러니까 나지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이것은 학교장의 지도력 부족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선생님들의 직무유기다, 이러는 학교들도 있더라구요.

교육장님들 그거 참고로 아셔야 될 거예요.

여기 옥천에 보면 교당 80만원, 그렇죠?

(관계관 석에서 “예” 하고 말함)

그런데 교당 80만원을 세워놓으면 제로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8,000만원을 세워도 제로화가 안 돼요. 다만, 이것을 꼭 이렇게 일률적으로 80만원 전부 할 것이냐, 아니면 학교 재량으로 해서, 책임제라고 돼 있으니까, 어느 지도계획 보니까 교장, 교감, 담임 책임제로 돼 있더라구요. 그 책임을 학년초에 부진 학생이 있던 것을 확인했다가 구제가 됐으면 그 사람에게 그거보다 더 큰 상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조금 더 당근이 될 수 있는 주요 계획을 차별화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여러개 중에 작년부터 제가 재미있는 표현이라서 지적하는 게 있어요. 친구사랑 우정

의 날이라는 게 있는데, 작년 청주가 4월 첫 주, 7월 9일, 10월 24일이고 나머지는 전부 4월 첫 주 월요일이었어요. 작년에 감사를 다니면서 제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교육장님의 방침대로 1년에 한번 우정의 날 정해서 폭력이 없어질 것 같으면 그까짓 거 한달에 한 번씩 하면 전부 없어질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교육장님 교육청 단위로는 몇 번을 정할 수 있으되 좀 자율권을 주고 아까 감사와 관련해서 학교에 어느 학급 우수사례를 보게 되면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그 학급 학생들 생일날을 우정의 날로 정해서 그 생일 맞는 학생들에게 그 반 학생들이 전부 우정 표시를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러니까 그 학급은 정말로 우정이 돈독해졌다. 그런 사례가 어느 시·군엔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조금 늘어나기는 늘어났어요, 전부 늘어났더라구요. 그래도 신경써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집단지도프로그램으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학교 특색으로 발휘가 되는 데가 있으면 좀 칭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학교 손씻기가 1830이 전부 똑같더라구요. 뭔가 하고 봤어. 그랬더니 하루에 여덟 번씩 30초 씻는대요. 이런 말

만들어내는 사람 참 묘한 사람들이야. 여덟 번을 꼭 30초 씻어야 되는 거고. 그래 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학교 가 보니까 손 소독기가 있어요. 어느 교육장님이 해 줬더라고. 그런데 어느 학교는 해 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줬다. 교육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 소독기가 필요하다면 연차적으로 차등 계획을 세워서 전 학교에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와 겹해서 한 가지 여쭙보려고 그러합니다.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학교환경오염측정이라는 것을 매년 하죠? 그런데 교육청 단위로 오염측정기 다 사준 것으로 내가 여기서 확인했는데 사셨습니까?

(관계관 석에서 “예” 하고 말함)

그런데 그걸로 하지 않고 의뢰를 해서 하죠, 용역을? 그건 무용지물로 두는 겁니까?

● 영동교육청 교육장 정구석

그걸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 서수웅 위원

그런데 내가 확인한 바로는 각 학교에서 50만원 내지 큰 학교에서는 한 7,8십만원 들여서 1년에 한 번씩 측정을 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의뢰기관이 충청대학 부속 무슨 기관인가 돼 있어요. 그거 한 학교에서 7,8십만원 적

은 돈이 아닌데 그런 큰 돈을 들여서 구입한 장비가 있으면 그걸로 하는 게 옳지 않나.

하여튼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교육장님들 참고로 메모하셨다가 한번 가시면 확인해서 그걸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질의 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종부세를 금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로 전부 완전히 재교부해서 그것을 교육에 20% 투자하도록 지금 법제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가 확인을 했냐면 여기 신문에 경남 부산에서 마찰이 생겼더라구요. 20%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교육장님들 능력에 따라서, 어느 시·군은 오케이 해서 줬어요, 그런데 어느 시·군은, 그것은 희망사항이니 우리가 안 줄 수 있다, 안 주는 거예요. 똑같은 도내의 교육장들도 어느 군은 받고, 어느 군은 못 받고 문제가 되는데 혹시 종부세 20%에 대한 거 지자체장들과 협의했거나 지금 추진사항 있는 분들 계세요?

● 보은교육청 교육장 김중규

저희 보은군에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서수웅 위원

긍정적으로 나오니까?

● 보은교육청 교육장 김종규

궁정적으로는 아직 저기를 안 하고 중부세와 관련해서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을..., 왜냐하면 저희들 보은군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낮아가지고 대응투자가.....

● 서수웅 위원

재정자립도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종합부동산세에 의해서 세금을 재교부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20%가 정해져 있더라구요. 영어체험센터에 몇 프로죠? 영어거점학교에 몇프로, 종일반 교육계 5%인가 6%인가 이렇게 퍼센트가 정해져 있던데, 이거 아마 앞으로, 지금 여기서 이것을 왈가왈부 따질 문제가 아니라 이런 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음에도 지자체에서는 가능한한 숨기고 안 주려고 그러는 거고, 교육장님들은 그것을 받아 내서 거기에 맞도록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거 관심가지고 확보하는데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청주 교육장 안성배입니다.

청주시청하고 저희들 담당자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청주의 경우에 12월달에 거기에 대한 저기를 예산편성이 돼 있어서, 우리 교육청으로 줄

예산이 추경에 편성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는 있습니다.

● 서수웅 위원

이거 신문을 보니까 아주 새로운 정보라서 우리도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 청원교육청 교육장 김윤기

청원 교육장 김윤기입니다.

청원군은 지금 현재 7억 5,000만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서수웅 위원

앞으로 능력 좀 발휘하셔서 주어진 예산을 100%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성영용

서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죠? 특히 청원, 보은, 옥천 교육장님은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여러 가지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업무를 확실하게 파악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국민들한테 가장 큰 관심사가 뭐냐고 물으면 경제를 희생시켜서 사람답게 살게 해 달라는 거, 일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젊은애들이 취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거고, 두 번째가 공교육을 좀 활성화시켜서 사교육비가 좀 덜 들어갔으면 좋겠다, 교육비 때문에 아이를 못 낳겠다는 애깁니다. 또 그렇게 해야 교육격차가 해소되지 않겠느냐, 가난해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국민들의 대부분 국민들의 대표적인 바람일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뭐냐 이러면, 저는 당연히 학력을 신장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교육청들이 지금 첫 번째로 조화로운 학력신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업 방법 개선, 맞춤형 장학실시, 이런 것을 통해서 학력신장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아주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청주교육청에서 17쪽 보면은 앞으로 각종 학력평가 실시를 대비를 해서 계획을 잘 세우고 있고, 이미 싫든 좋든 국가시책으로 중학교 신입생에 대해서 학력진단평가를 지난 2월달에 실시했죠, 교육장님?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청주 교육장 안성배입니다.

예, 실시했습니다.

● 이상일 위원

전국 연합학력평가도 3월에 했고, 앞으로 8월, 10월, 12월경에 도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고, 중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를 하고,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지도한 학생이 과연 학업성취가 어느 선에 와 있는가 궁금할 겁니다. 또 교장선생님은 우리 학교가 전국의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과거에 그런 것을 비교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내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우리 학교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우리 학교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모르고 지도를 했습니다.

좋든 그르든 우리는 경쟁사회에 삽니다. 훌륭한 학력을 가진 사람, 우수한 학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제일 가깝습니다.

우리가 모든 거 백사 다 제쳐놓고 2008년은 학력신장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는 해,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보은, 옥천, 영동 인구가 계속 줄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시간이 좀 걸리지만 명문학교를 만드는 거. 우리

다 알지만 거창고등학교가 왜 전국적으로 유명합니까, 그 산골에. 그러니까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역 인재육성에 돈을 쏟고 있습니다. 보은 같은 데서도 훌륭한 학교가 많이 나와서, 그렇게 되면 보은에서 학교 보내서 뭐하러 외부로 유출을 시키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잡다한 거 다 내버리고라도 학력신장에 최우선을 두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교육장님들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영어를 영어로 말하는 수업, 또 초등학교 영어수업시간 확대, 이런 것은 우리 모두의 앞으로 큰 숙제일 겁니다. 아마 새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어떤 시달이 되겠지만 미리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부탁드립니다. 청주시하고 청원군 쪽에는 학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학교를 신축을 할 겁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보니까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견실한 시공 정착, 그래서 시설공사를 공동 감리하고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공동 감리를 하고,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대단히 참 좋은 생각입니다. 특히, 청주교육청은 올해 1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오랜 숙원이던 새 청사를 건축하시죠?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일 위원

저는 몇 년간 학교 건축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이 설계가 잘돼야 되겠다. 그런데 물론 건축물이니까 미적인 감각이라든지 주변 환경과의 조화,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육시설은 효율성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필요한 시설을 하면서 진짜 공사는 잘 안돼요.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제일 아까운 쪽에 들어가는 게 방수공사비입니다. 물론 이제 건축을 한 지 20년, 30년이 된 교사라면 당연히 수리비 들어가겠죠. 그런데 신축한 지 10년도 안된 학교에서 물이 샌다고 몇 억 씩 방수비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새롭게 개교하는 학교에 가보면 교장선생님이 시공업체한테 아주 수고했다고 근사한 감사패를 줘요. 그래서 속으로, 난립 시공을 한 사람한테 무슨 감사할 일이 있냐 말여, 자기 돈 받아먹고 일하는 사람인데 뭘 감사할 게 있어. 그거는 예산에 비해서 성실하게 시공을 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 봉사했을 때 주는 감사패인데, 제가 제일 속상한 것 중의 하나가 과거에는 돈이 없으니까 교실을 붙여 짓다보니까 그 틈새가 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은 교실 전체를

한꺼번에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3년, 4년된 학교가 비가 새고 금이 갑니까?

교육청에서 교육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정말 성실한 시공, 적어도 학교 한번 지으면 50년, 60년 써야 되는데 지은 지 7,8년에 물이 줄줄줄 샐니다. 이것은 한번 교육장님들이 시설과 같은 데도 말씀하셔서 해 주시고, 그 설계 부분도 우리 잘 몰라서 그러는데 최신 설계라고 해서 해왔는데 좁은 운동장에 디귤자로 해가지고 중간에 있는 칸은 어두워서 대낮에 불을 켜야 화장실에 들어가고, 왜 그렇게 설계를 합니까. 차라리 아파트마냥 딱 이렇게 4층, 5층으로 해놓으면 밝기라도 하죠. 또 운동장이 도리 없이 배치를 동서양으로 할 수밖에 없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충분히 남향으로 질 수 있는 터를 두고도 동서양으로 해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것도, 또 몇 년 전에는 오픈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교실을 복도가 전부 없게 만들어가지고 옆에 반에 수업을 하는데 들리지 않습니다. 그 넓은 거를 다 뜯어고치고 엄청난 예산이 들었는데, 교육장님들께서 관심을 설계도면을 누구라도 보여줘가지고 실용적인 설계가 되도록 해주시고, 그 공사가 견실하게 돼서 없는 예산으로 학교 지은 거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해 주셔도 좋고, 제 부탁 말씀으로 알고 혹시 도움이 되면은 교육행정에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성명용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 위원

정무 교육위원입니다.

꿈을 키우는 희망 청주교육을 이끄시는 안성배 교육장님, 또 근본을 이어가는 정구석 교육장님, 그 동안에 참 남다른 열정과 투철한 교육철학으로 그 공을 인정받아서 지역교육청 수장으로 발탁되신 김윤기 청원 교육장님, 김종규 보은 교육장님, 조남수 교육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앞에서 말씀하신 교육위원님들처럼 각 시·군 교육청에서 나온 주요업무계획서를 제 나름대로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애쓰신 흔적도 많이 있지만은 또 기대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유인물을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그 유인물에 대해서 잠깐 제 나름대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어느 교육청이고 교육청 교육의 기본방향, 이렇게 나와 있고, 교육지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래의 4개 교육청을 빼놓고는 거의 다 7개 교육청이 교육지표를 세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지표는 같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육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장님들의 안목, 교육장님들의 교육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비전이 똑같은 데가 많아요. 도교육청하고 똑같은 데가 많습니다. 교육철학이 교육감님하고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전부 비전을 바꾸어서 나름대로 소신 있는 그런 비전이 되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도교육청 주요업무를 근간으로 하다보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같은 데가 몇 군데 있고, 그 부수적인 문구도 보면은 비슷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장님들의 나름대로의 철학, 비전을 이렇게 똑같이 했을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 신경을 써 주시고, 뭔가 그 지역교육청의 특색과 교육장님의 여태까지 쌓아오신 교육철학이 한마디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세워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몇 교육청을 보면 잘된 교육청도 있고, 교육장님의 교육철학을 거기서 엿볼 수도 있었습니다. 교육시책은 도에서 하는 것을 근간으로 세부적으로 자상하게 각 교육청 실정에 맞게 재구성해서

하는 것이 대개 보면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화사업에 보면은 지금 우리는 시대감각에 예민해야겠다, 새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경제대통령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를 굉장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도 지역 특산품 공산품을 위해서 경제적인 면을 특화사업으로 넣어야 되는데 넣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물론 넣은 곳도 있지만은 11개 시·군을 볼 때에 그런 것, 또 아까 여기 비디오에도 봤지만은 또 교육부문에 있어서는 영어몰입교육, 이것도 시책에 보면은 작년과 비슷합니다. 이것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좀더 강화해서 새 정부의 시책과 이게 맞물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미흡하지 않은가,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에 쫓다 보니까 약속시간을 지켜줘야 되겠고 제가 간단하게 앞에서 교육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청주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31쪽입니다.

학교폭력 신고 및 대처시스템 작동 강화 중 배움터지킴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 배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는 중·고등학교 60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8개교에 배움

터지킴이를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사의 감독이 소홀한 취약시간대에 학교 교내 교외를 순찰하여 학교폭력과 청소년 비행을 미연에 방지하고 방황하는 청소년을 선도하고 학생 생활지도로 보좌하는 배움터지킴이는 누가 하는 건지. 그 배움터지킴이를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청주 교육장 안성배입니다.

배움터지킴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청주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는 청주시청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개 학교인데 경덕중학교, 금천중학교, 원봉중학교, 그리고 용암중학교, 청원중학교, 청주여중, 그리고 청주중앙여중, 원평중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킴이로 나오는 분들은 교육계에서 퇴직하신 분들이나 또는 경찰에서 퇴직한 분들로 돼 있습니다. 시청에서 지원을 받는 그 액수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 수당을 그래서 그걸로 주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네 학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퇴직한 분 한 분, 교육에서 퇴직한 분 한 분, 한 학교에 두 분씩 계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학교에서 상당히 선호도가 높아졌고 해서 학교를 더 넓

혀야 되겠다 해서 한 분씩으로, 학교에 한 분씩으로 배치를 해서 8개 학교로 금년에 늘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상학교는 그래서 신청한 학교 가운데서 선정이 된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지킴이로 나오는 분들은 그렇게 퇴직한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 **정무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배움터지킴이 학교를 앞으로 도 점차 늘려갈 계획이죠?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늘려갔으면 사실상 좋겠는데 아직 시청에서 더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할애 받지 못했습니다.

계속 늘려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무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퇴직하신 교원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배움터지킴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좀 거기 하고 싶은데 일선 교장선생님들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퇴직 교원, 경찰관 뭐 지도상 답사 뭐 이런 분들이 하는데 보면은 경찰관으로서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학교에서 하는 건데 이왕이면 우리 퇴직 교원들을 해 주면 좋은데 어째 경찰관들만 해 주고 우리는 안해 주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면 이런 거를 교육장님들이 그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삼락회 같은 퇴직하신 분들의 모임단체에 얘기를 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을 조사를 해서 그 학교하고 연락을 해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청주 교육장 안성배입니다.

지금 정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나름의 실태를 보면은 지금 이게 그분들의 활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 우리 교육계에 계신 분들보다 경찰에서 퇴직하신 분들을 선호하는 학교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순회지도, 여러 가지 저기 하는데 사실상 아이들 지도면에서 그분들이 더 폭넓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생활지도 선생님들하고 생활지도부장들하고 다음 번에 배움터지킴이 하는데 어느 분을 하면 좋겠느냐, 여러 분이 원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선정을 하는데 대부분 열심히 잘 했던 분들이 그렇게 선정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교장선생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 위원

퇴직하신 교원들을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관심을 가지시고, 돈보라도 그 분들의 소일거리로 또 그 분들의 교육자라는 사명감으로 아마 하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교육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얘기 들으니까 배움터지킴이를 68개교로 늘린다는 중등생활담당장학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중·고등학교 전면 배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지대한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원, 보은, 옥천 교육장님은 이제 교육장으로 취임하신 지도 며칠 되지 않아서 주요 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영동교육청 정구석 교육장님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영동은 과거 제가 한 10년 동안 근무한 곳이고 해서 저는 누구보다도 영동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본을 이어가는 영동교육을 추진하느라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아까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에 특화사업과 노력중점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계획하시는 것을 보고해 주셨는데 제 나름대로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특화사업으로 감골사랑운동은 정말로 지역경제 교육과 연결돼서 제가 아까도 서

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 정부에서 경제를 굉장히 이슈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특화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 앞으로 그 사업이 좀더 활성화되고, 좀더 아이들한테 체험활동 중심이라든지 또는 뭐랄까 영동 모든 사람들이 감골사랑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행동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골사랑운동, 국악교육하고 감골체험활동 이렇게 나와서 아까 교육장님께서 자상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알고 있는데 그 꽃감 깎기 체험활동을, 감이 그렇게 많은가요? 아이들이 다 이렇게 깎을 수 있을 정도로.

● 영동교육청 교육장 정구석

지난해에 초등학교에는 감나무가 다 있습니다. 꽃감 깎기를 체험학습을 했는데 아주 효과가 좋아가지고 방송국이나 다른 데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 정무 위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감 먹기만 하지 깎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깎을 때 어떻게 깎는지 모르지만 깎는 기구가 있어요?

● 영동교육청 교육장 정구석

예, 기구가 있습니다.

● 정무 위원

요새 애들 연필도 잘 못 깎는데 감은

어떻게 깎을까 싶어서.

● 영동교육청 교육장 정구석

기구가 있습니다, 감 깎는 칼이 따로.

● 정무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감골사랑운동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성영웅

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허락하신다면 우리 정무 위원님께서 비전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 의장 성영웅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아주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 의장 성영웅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사실상 충북교육지표는 충북교육이 추구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봤을 때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충북교육학에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감이 정할 수 있는 것은 틀림없이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전은 지표하고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여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비전도 또한 지표와 동일한 것으로 봐서 교육감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설치된 학급이나 교육행정기관인 지역교육청에서 별도의 지표와 비전을 설정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 편성을 위한 자체 기획위원회에서 의견을 그렇게 일정한 것으로 저희들은 했습니다. 그래서 청주교육청에서는 충북교육 기본방향에 근거해서 충북교육지표로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과 그리고 충북교육비전 신나는 교실, 행복한 학교의 구현을 위해서 꿈을 키우는 희망 청주교육을 청주교육의 상징으로 해서 창의, 품성, 감동 교육을 바탕으로 특히 3대 교육에, 3대 사업에 역점을 하기로 기본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에 관한 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성명용

청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장이 별도 아쉬운 점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6일날 교육감께서 기본이 바로 선 충북 학생 만들기 기자회견을 가졌

습니다. 이 회견은 기본적으로 인성을 바탕으로 한 학력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제가 판단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4개 항목으로 5개 덕목실천운동, 친구와 함께 하는 야영활동, 찾아가는 감동생활지도, 기본생활지도 실천 범 도민운동 이렇게 해 가지고 4개 항목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이 4개 항목의 실천을 위해서 오늘 제가 안타까운 것은 각 교육청에서 발 빠르게 주요업무계획에 일부 여기에 관계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교육감께서 지침하신 이 부분이 오늘 어느 정도는 조금이라도 마스터플랜이라도 제시되기를 기대했었는데 어느 한 분도 안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대표로 청주 교육장님 한번 의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예, 저희들이 좀더 민감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서는 청주교육청의 경우는 이미 2월달에 이것이 나와서 2월달에 교장회의 때 이미 전달됐던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여기에 대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꼭 민감하게 대처하는 쪽으로 저희들 아주 감각 능력을 키워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성명용

사실 각 지역교육청에서 잘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교육감께서 특별히

인터뷰하면서까지 이래 한 부분은 오늘 교육위원들한테는 전혀 여기에 관한 한마디 말씀도 없다는 게 섭섭한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정보공유하고 같이 어떻게 나가는 것을 우리 교육위원들도 알아야지 지역교육청의 업무라든가 같이 협조하면서 충북교육 발전하는데 한 획을 같이 그을 수 있는 그런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장님들, 이런 부분 같이 공유해서 같이 잘해 나가도록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및 질의와 답변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교육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육장님들께서 보여주신 적극적인 관심과 의욕적인 실천의지를 통해서 충북교육이 한층 더 힘찬 도약을 하는 한해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교육위원 모두는 교육장들이 알찬 충북교육 실현을 위한 열정과 노력에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도

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주교육청 등 다섯 개 지역교육청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 0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회의계속)

● 의사담당 신현영

오전에 이어서 충주교육청 등 6개 지역교육청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성영웅

존경하는 동료 교육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충주교육청 손병기 교육장님, 제천교육청 전용천 교육장님, 진천교육청 최철환 교육장님, 괴산·증평교육청 김세영 교육장님, 음성교육청 박인수 교육장님, 단양교육청 정가홍 교육장님!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주요업무보고를 위항 자리를 함께 하신 지역교육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3월 1일자로 교육장의 직책을 맡으신 전용천 교육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과 2월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에 개최된 임시회 회기 중 도교육청과 직속기관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8년도 지역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고하게 되는 주요업무계획은 금년 1년간의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 계획이 총집결되어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그 내용 및 기관별 현황과 현안문제 등에 대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런 기회에 교육위원님과 교육장님들간에 진지하고 심도 있는 협의의 자리가 되어 충북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참석하신 교육장님을 대표하여 충주교육청 손병기 교육장님께서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주교육청 교육장 손병기

안녕하십니까!

충주교육청 교육장 손병기입니다.

새 생명이 움트는 약동하는 희망찬 새 봄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성영용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의장님과 곽정수 부의장님, 그리고 김병우 위원님, 김부용 위원님,

서수용 위원님, 이상일 위원님, 정무 위원님!

충북교육을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며 바른 잣대로 이끌어주시는 훌륭한 교육위원님들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정과 그를 통한 건설적 대안 제시, 견제, 비판으로 우리 충북교육은 든든한 뿌리를 내리고 성장 발전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은 신뢰받는 공교육, 신나는 교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교육청이 거듭나는 날로 지역교육의 책임을 맡은 저희 6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은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지역교육을 성장 발전시켜 나갈 포부와 다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지역교육의 거듭나는 뜻깊은 역사의 자리로 매김하며 이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6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을 대신하여 굳게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인사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3월 19일 충청북도충주교육청 교육장 손병기.

● 의장 성영용

손병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지역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하실 순서는 충주교육청, 제천교육청, 진천교육청, 괴산·증평교육청, 음성교육청, 단양교육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관별 일반현황 등 공통적인 사항은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주요사업 및 특색사업 중심과 2006년도와 2007년도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감사 및 간담회 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추진현황에 대하여 10분 내로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관별로 보고를 모두 들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순서는 위원님들의 신청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시간 여건 상 위원님 한 분당 15분 내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충주교육청 손병기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청, 제천교육청, 진천교육청, 괴산·증평교육청, 음성교육청, 단양교육청 순으로 업무 보고)

▶ 참 조 :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별책)

● 의장 성영용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가 경과되었습니다.

10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3시 50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회의계속)

● 의장 성영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교육청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위원님들의 신청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반갑습니다.

김병우 교육위원입니다.

오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시간이 좀 빠듯해서 저는 의례적인 인사를 생략하고 몇 가지 소회를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내년부터는 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먼저 반드시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역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이 대체로 도교육청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그 계획이 지역단위 실행계획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다만 지역별 특화사업을 가미한 것이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기 때문에 도교육청 업무가 깊어지지 않고는 그 한계라든지 이런 것이 그대로 지역교육청 사업에 스며들게 되고, 그래서 책임단위도 모호하게 되고 질의 자체도 질의 대상조차도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담당관님, 그리고 양 국장님들이 보고하고 우리는 그냥 청취하는 걸로 그쳤는데 내년부터는 질의 응답을 통해서 깊어봐야 될 기회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제안을 드렸었는데 내년부터 반드시 그렇게 해볼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 교육청의 실무자들 비롯해서 교육장님들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점검하시느라고 애를 쓰셨을텐데 조금 더 치밀하게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작년보다는 그래도 훨씬 많이 가다듬어졌다고 보시던데, 저도 그렇게는 봅니다만은 여전히 작년에 우리 김부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바탕이 된 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을 그대로 쓰거나 해석, 표현 면에서 바뀌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심지어는 목표치조차도 그대로 전제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간행물 발행이 도교육청 업무라면 발간이 업무라면, 지역단위에서는

그것을 배포하고 활용하는 것이 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여전히 좀더 세밀하게 깊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세한 예는 제가 이따가 한번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육청끼리 서로 본이 될만한 그런 것들은 공유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요업무계획 같은 것들을 서로 나눠보고 참고하시겠지만 사업 아이템이나 또는 계획서의 체제나 형식까지도 좀 본받을 것은 본받고,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 좀 권장할만한 모범으로 보이는 것들은 찾아서 다른 시·군에 참고하시도록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청별로 확인하고 싶은 부분들을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충주교육청부터 하되 공통으로 해당이 되거나 비교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같이 좀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교육청 7쪽에 1-1-1 사업과제 7쪽 제일 위 부분에 한번 보면요 다른 교육청들도 아마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추진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여지기보다는 수준

별 수업 확대 추진,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것이 그대로 전제가 된 건데, 그것보다는 제가 보니까 진천교육청이 아주 표현을 제대로 했습니다. 진천교육청도 제목은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동’자만 빼면 일단 제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밑에 수준별 이동수업 부분이 단계형 교과와 경우라고 이렇게 분명히 표시가 되어 됩니다. 영어, 수학 같은 단계형 교과일 때 이동수업을 해서 수준별 수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좀 정돈이 되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충주의 17쪽, 18쪽입니다.

이 도교육청 계획서부터 이 수업스타를 수업우수교사들의 수업안이라든지 하는 것을 일반화하겠다, 이런 목표는 제시가 돼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주로 홈페이지에 교수학습지원센터에 탑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전에 청주교육청이라든지 지금의 음성교육청, 제천교육청 같은 데서는 그 수업스타들을 공개수업을 하도록 하고, 수업공개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장학요원으로 활용한다는 좀더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화하는데 좀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획이 돼 있지 않은 교육청에서는 참

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2쪽에 각종 학력평가 실시 및 결과의 분석 환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올 3월에도 학력고사 문제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9월달 10월달 2학기가 되면 아주 이 문제가 정말로 예년보다 정말 심각해지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듭니다. 이것이 작년 9월달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연합학력고사가 합의가 되는 바람에 그것이 부가되어서 그런 것인데요, 일정을 한번 중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9월 중순쯤에는 예년에 해오던 도 수준학업성취도 학업평가가 올해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제 10월 초·중순이 되면 정기고사 2학기 중간고사가 있을 테고요, 10월 말에는 작년 9월에 교육감들이 합의한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 또 한 2,3주 후에는 다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학년말 고사가 12월 초면 또 있습니다. 이렇게 가뜩이나 몇달 되지도 않고, 또 행사가 많아서 진도 나가기도 벅차고 바쁜 2학기 때 거의 2,3주 단위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과연 무엇을 위한 시험이 될 것인가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고요, 이것이 정

말 아이들한테 시험 스트레스나 이런 거 엄청난 압박으로 가중되지 않겠느냐. 가뜩이나 거기다가 학생별로 학교별로 성적 비교까지 하면 정말 한 20여 년 전에 성적비관으로 1년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자살하고 그랬던 비극이 떠오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간이 되면 교육장님들하고 이런 고민을 나누고 싶은데 이런 자리에서 솔직한 토로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우선 저의 우려를 전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 23쪽 그 밑에 바로 1-3-4를 보니까 이것이 바로 표현이 도교육청 표현 그대로인 예 중의 하나일 것 같아요.

교실수업 도약을 위한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이것은 도교육청 계획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충주교수학습센터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충주교수학습지원센터 활용이라든지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 교수학습지원센터가 도교육청 계획에 따르면 충북 도 단위로 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있고 또 시·군교육청에서 또 홈페이지에다가 마련해서 활용을 하라고 그러고, 학교는 도움센터 이래가지고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업자료들이 이렇게 분산돼 있고 산재돼 있기보다는 차라리 정산을

해서 도 단위에서 통합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래서 지역이나 학교단위에서는 최대한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교육청 업무계획 점검 기회가 있었다라면 그렇게 얘기를 할만한 부분인데 집행청에서도 참고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쪽에 이거 교정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오탈자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거 보면 저는 짜증이 납니다. 우리가 이 교정봐주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학교별 과학특화사업 추진 보니까 1교 1특색 과학테마라이브리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아이템은 참신하고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라이브리가 뭐죠? 교육장님, 라이브리가 뭐니까?

● 충주교육청 교육장 손병기

라이브러리.....

● 김병우 위원

예, 라이브러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작은 착오이지만 좀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자투리땅 텃밭 체험마당, 이것은 아이템도 참신하고 정말 기대가 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3쪽을 봐주시면요, 5-3-4에

축산물 유전자 검사 20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조리 학교가 몇 개 교나 됩니까?

● **충주교육청 교육장 손병기**

운반 급식하는 학교가 5개정도 되고요, 거의 자체 급식을 합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러면은 20개교는.....

● **충주교육청 교육장 손병기**

20개교는 표집도 하고 권역별로 다 가.....

● **김병우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20교 하니까 적지 않은 학교이긴 하지만, 기회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유전자 검사’ 이름은 대단히 엄청난 검사 같은데도 검사료는 싸입니다. 2만원도 안돼요. 그래서 이것을 불시에 좀더 자주 해서 아이들한테 충실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학교 자체에서도 유전자 검사를 자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도 좀더 횟수를 늘리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충주교육청 교육장 손병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작년 12월에 아까 이제 다른 데에서 나왔는데 SWOT 분석이라고 해서요, 급식계에서 하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도 교육

청에서, 학교수는 20개교인데 어느 학교를 할지도 모르고, 또 언제 할지도 모르고 해서 해가지고 작년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요, 정확하게 하고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지금 보건급식계에서 하거든요.

● **김병우 위원**

하여튼 특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뒤에 이제 이런 유전자 검사 활성화를 위해서 에듀 수라상 카페를 운영한 다라고 하는 아이템이 참신해 보이는데, 이거 보건급식담당이 운영을 하는 겁니까?

● **충주교육청 교육장 손병기**

예, 교육과에 보건급식담당.

● **김병우 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없는 아주 창의적인 아이템 같아요. 기대를 하고요, 다른 시·군에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로 65쪽에 또 충주교육청이 특별하게 2008. 충주교육 캐치플레이즈를 이렇게 ‘Good 충주’로 캐치프레이즈를 설정을 하셨는데 아이디어가 반짝입니다.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 **충주교육청 교육장 손병기**

이것을 만들긴 제가 만들었는데요, 작년 11월부터 저희들 지나간 교육시책 성과분석하고, 또 2008년도 계획을 했는데 지금 총 58명을, 교육과쪽에 28명 교감 장학사 이렇게 해서 조직을 했고, 관리과

트에 30명을 관리과 직원 22명하고 일선 행정실장 8명을 넣어가지고 그 과별로 교육과 28명, 관리과 30명을 해가지고 네 번에 걸쳐서 저희들 충주교육청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충주교육을 세계의 인재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그 장학사님들하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단어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이런 말들이 정말 인상적이고 그래서 그제 머리에 쑥 각인이 되어서 교육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효과를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런 신조어를 만들 때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게 특히나 우리말이 아니고 외국어이기 때문에 혹시 원어민들한테 이런 조어가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까?

● 충주교육청 교육장 손병기

이것을 해놓고 우리 오문균 장학사님이 영어선생님이거든요. 영어교사를 한 25년 하였고, 또 우리 교육과장님이 불어 전공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여기 나오는 네 단어는 그런데, 사실은 ‘투월드 해서 세계를 향하여’ 이렇게 구체적인 저기는 있어요, 여기 발췌는 이렇게 했는데, 세계를 향해서 우리 교육 인재가 뻗어나가자, 이런 뜻으로 했어요.

● 김병우 위원

그냥 단지 개념의 나열이나 조합, 뭐 이렇게 모자이크만 되어서 돼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머리 글자를 철자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정말로 이렇게 순서도 제대로 맞고 해야 그것도 조어법에도 맞고 한데 그런 검토를 하셨나, 그것을 여쭙었습니다.

충주교육청 교육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에는 제천교육청 물어보겠습니다.

● 의장 성영용

속기록 기재를 위해서 답변하시는 분 말씀을 해 주시면 속기록 기재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냥 답을 하시게 되면 꼭 쳐다보고서 속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굉장히 원활한 속기가 가능하겠습니다.

꼭 염두에 두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저도 조금합니다. 만은 좀 약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천교육청 보니까 업무계획서에 오전에 서수용 위원님도 확인을 하셨었는데 이 담당자 실명제가 아주 의미있을 것 같습니다. 괴산·증평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혹시 이렇게 착안을 하신 의도가 있으신가요? 어떤 취지로, 괴산·증평 교육장님이라도 혹시 대답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장 김세영**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담당별로 업무가 분류되어 있고, 또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것은 제천, 괴산 뿐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좀 본으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보니까 중학교 학업 성취도 문항 자료집 개발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말 개발하실 건가요?

● **제천교육청 교육장 전응천**

장학자료를, 도에서 나온 그 외에 장학 자료를 제작 보급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급을 할 이런 계획을.....

● **김병우 위원**

직접 개발 제작을 하실 겁니까?

● **제천교육청 교육장 전응천**

예

● **김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26쪽에 충북진로교육협의회라고 나와요. 이거 도교육청 사업 같은데, 그죠?

● **제천교육청 교육장 전응천**

전체적인 특별한 거는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것에 준하고, 제천교육청에서는 교육청과 새교육공동체 주관으로 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 **김병우 위원**

충북이 아니죠, 충북은 아니잖아요. 이름이 충북으로 붙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제천교육청 교육장 전응천**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다, 저도 이래 느끼고 있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 다음에 36쪽에 보니까 프린터가 겹쳐서 중복돼 있는 거 있습니다. 교육가족 사랑의 결연 운동, 이런 것도 교정할만한 거리이긴 하지만 이런 것을 좀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제천교육청 교육장 전응천**

예

● **김병우 위원**

그 다음에 59쪽에 특화사업에 교과별 학력제고 지원단, 이 부분은 사실 아주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예산과의 관련성이 불분명한데 예산은 추가 편성이 돼 있습니까?

● **제천교육청 교육장 전응천**

제천은 예산 교육지원을 지금 5%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자체 교육보조금으로 2,500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유치원 교육활동 공동운영, 이 부분은 청원교육청과 더불어

서 지역 특성을 잘 살린 특화사업일 거로 기대가 됩니다.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진천, 진천은 7쪽에 특화사업 추진 성과 정리가 참 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별 담당 표시가 안돼 있어요. 이것은 제천과 괴산·증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교육청들에서도 그런데 여기 12쪽에 보니까 입시관리 부분에 입시라는 표현이 사실은 입학전형관리라는 말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진천은 그 정도로 약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괴산·증평교육청은 거기 'Hopedu' 라는 부분이 역시 신조어인데 제가 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보기에 역시 일그러진 조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언어의 용어는 의학적으로 오염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특히 이런 방식을 쓰는데 교육적으로 그렇게 권할만한 조어법은 아니더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16쪽에 맞춤형 학업 성취도 평가, 학력진단을 연4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기고사를 말하는 겁니까?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장 김세영

예, 그렇습니다.

● 김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쪽에 교사동아리문화축제, 이것은 도 단위 행사입니다. 그죠? 이것은 참여, 참가, 이렇게 표시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2쪽에 학교 CEO 연찬회 연2회, 이거 연찬회도 도에서 두 번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전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9쪽에 4-3-3 AHIS(학교변화 지원제도:Assistant,Helpful, Innovation System) 이거 어디서 하는 제도입니까?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장 김세영

도에서 하는 제도입니다.

● 김병우 위원

도 계획서에는 만나와 있어서 여쭙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감초핵심연수, 이것은 무슨 개념인지가 대번 떠오를 정도로 아이টে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4쪽에 특화사업 원어민을 활용한 영어교육 활성화, 이 부분에 소요 예산을 보니까 아주 군과 농협, 양계 군과 농협의 지원예산을 끌어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는 음성교육청으로 하겠습니다.

음성교육청 상당히 꼼꼼하게 잘 하셨는데요, 이 수업스타를 지구별로도 스타를 선정하고, 또 학교별로도 선정하고, 학교별로 영어과는 반드시 또 선정하고, 그래서 그게 또 혼란을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 부분 운영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업 관계는 지구별 스타만 한다고 했었나요?

● 음성교육청 교육장 박인수

예

● 김병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양교육청은 계획서에 단양 특색표시가 상당히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참고하시기 바라구요, 12쪽에 우리 학교 수업 자랑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종래 장학지도를 말하는 거죠?

● 단양교육청 교육장 정가흠

예

● 김병우 위원

표현이 이렇게 유연해 지니까 그런 점이 좋아 보이네요.

그 다음에 13쪽에 수업스타는 장학요원으로만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처럼 공개수업으로 시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양교육청 교육장 정가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18쪽에 방과후 도서관 개방은 옥천 같은 데서도 한다고 들었습니다만은, 그럼 여기 누가 근무하는 겁니까?

● 단양교육청 교육장 정가흠

저희 학교는 Pie Room(초등 Play in English Room, 중등 Program in English Room) 도우미들이 보조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러면 몇 시까지.

● 단양교육청 교육장 정가흠

대개 5시부터 9시 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러면 수당은, 아니면 탄력 근무로 조정을 합니까, 아니면 수당을.....

● 단양교육청 교육장 정가흠

자원봉사자로 들어와 가지고 일부 약간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에 독서교육상을 교육장님께서 우수자한테 시상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마다 한 명씩 다독자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에게 주는 건가요?

● 단양교육청 교육장 정가흥

영역이 여러 개 있으니까 다독도 있고, 기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성영용

김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부웅 위원

교육위원 김부웅입니다.

직선제 교육감님이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 열리는 주요업무보고회에서 교육장님들을 한꺼번에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오늘 보고회의 성격이 감시와 견제라기 보다는 새 학년도의 업무를 파악하고 또 교육활동에 대한 다른 교육청과의 상호 비교의 자리라고 생각해서 저도 11개 시·군 교육청의 업무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적인 개인 의견을 말씀드릴 테니까 수정 보완 내지 또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제가 좀 세심하게 살폈더니 켜켜하게 그런 걸 다 따진다고 이렇게 뒷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올해의 보고서를 제가 검토하면서 그래도 참 많이 개선됐구나 하고 내심 교육장님들한테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충주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북부지방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손병기 교육장님 늘 능수능란한 대인 대화 여기에서 모처럼 아마 충주교육청이 조용한 한 해를 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쪽입니다.

맨 위에 보면 외부강사 고충처리센터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고충처리센터가 필요할만큼 지금 강사수가 많은가요?

● 충주교육청 교육장 손병기

충주 교육장 손병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25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00명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 김부웅 위원

많네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고충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19쪽에 보면 교실수업연구발표대회 교육감상 수여는 이것은 잘못된 것 같네요. 도대회 추천이 되겠죠.

● 충주교육청 교육장 손병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 김부웅 위원

25쪽에 SWOT분석을 통한 특화사업 및 역점사업, 담당별 중점 추진과제 개발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교육청에 없는 시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충주교육청 교육장 손병기

충주교육청 교육장 손병기입니다.

SWOT분석은 네 가지로 분석을 하는데요 S는 Strength 해가지고 강점, W는 Weakness 해가지고 약한점, O는 Opportunity 해가지고 기회성, 이래가지고 이게 일반 회사에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T는 위협적인 요소로 해서 Threat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분석을 해가지고 했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특색사업 세 가지하고 노력점, 역점사업 세 가지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병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교육과하고 관리과 시책을 내서 그 사람들을.....

● 김부웅 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31쪽 아래쪽을 보시면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이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이렇게 써있단 말이예요.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충주교육청 교육장 손병기

충주 교육장 손병기입니다.

저희들은 삼원초등학교에 전광판이 있

어서요 그 시민들이나 전 도민들, 외부인들을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 전산담당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도내 많은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충주에 국한하지 않고 특별히 하기 때문에.....

● 김부웅 위원

음성교육청은 음성교육청 산하로 되어있길래 아주 잘돼 있다고.....

● 충주교육청 교육장 손병기

저희는 도 전체로.

● 김부웅 위원

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우 위원님이 하신 것은 다 빼고 읽는 거예요.

다음 제천교육청입니다.

제천교육청은 전국 과학전에 특상, 소년체전 금상 등 눈부신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감사드리고요, 8쪽을 보시면요 가운데쯤 학생 선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에서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2종을 한다고 그랬는데, 다른 교육청은 전부 도에서 보급한 것을 5종을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제천만 2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제천교육청의 개발 계획이 있는 건가요?

● 제천교육청 교육장 전용천

제천교육청 교육장 전용천입니다.

우리 교육청 자체로 장학자료를 제작

보급해 가지고 이래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부웅 위원

도에서 5종 그거 외에?

● 제천교육청 교육장 전응천

예

● 김부웅 위원

기대됩니다.

그 다음 10쪽을 봐주십시오.

이것은 다른 교육청도 다 공통된 내용이 되겠는데 새로운 공교육의 희망, 방과 후 학교 확대 운영, 이런 사업명이 있지요. 읽어보면 사업내용도 모두가 공교육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전부 방과후 학교에 대한 것만 잡혀져 있습니다.

자칫 정규시간 수업보다도 방과후 학교 운영에 더 힘을 쏟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도 있을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천교육청 교육장 전응천

제천교육청 교육장 전응천입니다.

내용은 사실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정규 교과 교육과정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충하는 과정으로 우리 교육청은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부웅 위원

몽땅 거기는 방과후만 나왔길래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 제천교육청 교육장 전응천

거기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 김부웅 위원

13쪽에 수업스타 도 대회 출전자에 대한 지원금 20만원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칭찬드립니다.

19쪽에 가운데쯤입니다. 내 삶 쓰기 100자 운동 전개, 참 근사한 특이한 이런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간단히 소개 좀 해 주세요.

● 제천교육청 교육장 전응천

제천교육청 교육장 전응천입니다.

열 문제를 사제 동행해서 독서시간에 그 내용을 독서감상문 쓰는 것을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100자 이내로 써야 되겠다, 이런 것을 사실은 논술 기초교육의 일환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것을 씬으로써 인성교육의 일환적 차원으로써 제목도 주고 이럴 때는 좋지 않나, 이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해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걸 했습니다.

● 김부웅 위원

좋은 시책 같아요.

그 다음에 35쪽에 가운데쯤 보면은 학교 주변 안전지대 운영에서요, 안전지대 순찰은 누가 하는 겁니까?

● 제천교육청 교육장 전응천

순찰은 그 학교 선생님이 하는데 주로 제천 경찰서 서장이 박노현 서장님인데

오늘내일 발령이 난다고 하시는데, 그 서장님과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제천 하여튼 폭력 제로화를 위해서 경찰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달라. 그래서 지금 제고하고 여고가 11시 40분에 보충수업이 끝나는데 그때 이래 가보면 경찰이 지구대 활동을 해가지고 멀리서 순찰차가 돌고 경찰도 돌고 이래서 부형들이 안전하고 학생들도 마음놓고 할 수 있지 않나 이래서 지금 돌고 있습니다.

● 김부웅 위원

46쪽 아래를 보시면요 교육행정감사 운영 항목인데 기동감사반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기동감사반을 운영해야 할만큼 제천 교육행정이 불투명하다고 보십니까?

● 제천교육청 교육장 전용천

제천교육청 교육장 전용천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1월달에 화재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나고 이래서 화재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하고 있고, 기타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게 어떡냐 이래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 김부웅 위원

화재예방이 되겠죠, 기동감사반이라는 거보다는, 상당히 위협적인 얘기가 때문에 한번 짚어본 겁니다.

27쪽에 있는 상담인력풀 구성 활용해서 50중에 15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혹시 도의 사업 아납니까?

● 제천교육청 교육장 전용천

예, 맞습니다.

● 김부웅 위원

이거 옥천하고 제천이 그렇게 돼 있더군요 그래요.

그 다음에 29쪽 가운데 보면은 충북학생효도대상 시상도 이거 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같아요.

● 제천교육청 교육장 전용천

예, 맞습니다.

● 김부웅 위원

32쪽 가운데 학생상담전문성 향상 사업도 이거 도교육청 사업 같아요.

● 제천교육청 교육장 전용천

도교육청 사업인데 제천교육청에서는 전문상담교사 순회 상담 추진을 중·고등학교 10개교에 해야 되겠다 이거하고, 학생상담자원봉사 연수 50명을 하는 게 별도로 되어 있고.....

● 김부웅 위원

그래도 진술을 제천교육청으로 소화시켜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게 그렇게 재구성해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부웅 위원

학교폭력 제로화를 위해서, 또 소규모 유치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천교육 발전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괴산·증평교육청입니다.

괴산·증평교육청은 지난해에 소년체전에서 좋은 실적을 냈고, 또 김세영 교육장님이 언론 대처가 아주 섬세하시더군요. 그래요. 또 과장님도 같이 하시고. 그래서 늘 좋은 이야기가 괴산·증평교육청 이야기들이 뜨고 있습니다.

특색 있는 사업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9쪽 가운데 보면 사랑의 대안교육에서 대안교육기관을 다섯 곳 지정한다고 했는데 지정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도 사업입니까?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장 김세영

괴산·증평교육청 교육장 김세영입니다.

도 사업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 김부웅 위원

청주, 청원, 진천은 자기들 도 교육기관을 이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35쪽 위에 보면 전화친절 고객감동 이벤트를 연2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소개 좀 해 주십시오.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장 김세영

첫 번째는 교직원 전화친절 7행시 공모를 하고요, 두 번째는 전화친절 수기를 공모하는 겁니다.

● 김부웅 위원

도교육청에서도 이것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화를 걸어보면 상당히 친절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좋은 것 같고요, 35쪽 가운데쯤 보면,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투명한 청렴계약제 운영에서 금품수수, 향응수수 등 금기사항을 명시해서 계약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불신을 인정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입니다. 사실은 전국 제일 수준의 청렴도를 자랑한 게 엇그제입니다. 아직도 청렴도가, 계약할 때 금품수수 안 된다, 향응수수 안 된다, 이런 것까지 명시해가면서 써야 되느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6쪽 위에 괴산·증평교육혁신 산울림, 아주 특이한 홍보방안이라 생각돼서 이것도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장 김세영

괴산·증평교육청 김세영입니다.

혁신내용을 산울림 같이 우렁차게 확장시켜 보자는 의미로 시작이 됐습니다. 매달 5일날 10매 내외로 발행하고 있는데 2006년 4월달에 창간이 됐습니다. 내용은 변화추진실적, 각종 행사, 우수사례, 동아리 활동, 교육장, 양 과장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 김부웅 위원

아주 좋은 홍보방안이라 생각이 돼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김세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음성입니다.

음성교육청도 교육과정 최우수학교 선정, 또 과학 부문에서 많은 실적을 거양했고, 음성 선비정신, 토요일아리를 알차게 운영하는 등 아주 차분하게 발전하는 곳입니다.

12쪽 위예를 보시면 음성교과연구회를 국어, 영어, 사회 등 3개 교과로 한정했는데 한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3개 교과로.

● 음성교육청 교육장 박인수

음성교육청 박인수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4개의 교과로 선정을 해서 했는데요 그 전에는 10개, 13개 교과로 했었는데 예산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전체 교과연구를 하기에는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3개 교과를 알차게 운영하면서 국어교과운영회에서는 독서도우미 활동이라든가 연구, 독서축제, 이렇게 평소에 지도를 할 수 있고, 영어교과는 5분 영어 교재 발간이라든가.....

● 김부웅 위원

효율성을 높이자, 그런 뜻에서 선정한 거죠?

● 음성교육청 교육장 박인수

예, 그래서 사회는 살기좋은 우리고장

발간 등 이런 연구회에 심혈을 기울여서 심화하는 연수교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부웅 위원

충주가 30개고 진천이 44개, 괴산이 14개 교과로 되어 있어서 너무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많아서 짚어봤습니다.

18쪽 가운데 한번, First-Edu 음성 영어캠프 사업이 되어 있는데, 어떤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이걸.

● 음성교육청 교육장 박인수

음성교육청 박인수입니다.

학교에 설치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 교육청에서 지난해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좋은 아이디어로 영어캠프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부웅 위원

혹시 반기문 사무총장님 출생지가 음성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시책 같은 거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까?

● 음성교육청 교육장 박인수

예

● 김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쪽 가운데 보면 음성인의 선비정신 이어가기, 이런 교육내용이 있는데 본보기가 되는 선비가 있으면 몇 분 소개 좀 해보세요.

● 음성교육청 교육장 박인수

음성 군지에 보면은 효를 실천하는 음성군의 선비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부락별로 마을별로 면별로 선비가 있는데 제일 치는 선비는 서예가 김생 선비가 있고요, 조선초기 학자로서 권근이나 권남, 권제, 생극면에 세 묘가 있어서 본보기로 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김부웅 위원

선비교육에 아주 좋은 그런 자료가 될 것 같아요.

41쪽에 맨위에 보면은 직무성과계약제라는 게 있는데 4급 이상은 교육장, 또 5급은 관리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4급 이상이 음성교육청에 있습니까?

● 음성교육청 교육장 박인수

음성교육청 박인수입니다.

4급 이상을 일반직을 생각하지 않고 제가 교육감님하고 계약을 맺은 것을 적어 왔습니다.

● 김부웅 위원

감사합니다.

박인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천교육청은 제가 늘 옆에서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니 36쪽 가운데 하나만 합시다.

흡연예방교육이 사실은 교직원이 먼저 솔선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관내 흡연 교직원의 현황을 알아보셨나

요? 흡연현황.

● 진천교육청 교육장 최철환

진천 교육장 최철환입니다.

관내 흡연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부웅 위원

바로 알아서요 선생님들이 먼저 솔선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금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 진천교육청 교육장 최철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수웅 위원

교육장님은 안 피우세요?

● 진천교육청 교육장 최철환

저는 제가 옛날에 두 광씩 피웠는데 제가 청주여중에 교장 할 때 거기를 청소년 금연 시범학교를 했어요. 그래 제가 보니까 제가 담배를 피우니까 도저히 시범학교가 안 돼서 제가 먼저 끊어서, 끊은 지가 8년이 지났습니다.

● 김부웅 위원

다음은 단양교육청입니다.

단양교육청은 에듀토피아 단양교육으로 지난해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는 아주 실속있는 정책 실현이 돋보이는 곳입니다.

특히 시책 쪽에 단양 특색을 톡톡 돌출시켜가지고 아까 김병우 위원님 말씀대

로, 또 행사일정 안내 등 이런 것이 아주 일반화해야 될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0쪽, 11쪽을 보면, 제가 아까 오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방학아카데미, 여성인턴제, NGO, 멘토링제, Pie Room, 방과후 페스티벌, 고충처리센터, 사이버 가정학습, 사이버선생님, 클리닉, 노트북 컴퓨터, 콘텐츠, 굉장한 외래어가 지금 막 사용이 되고 있는데, 물론 불가피하게 꼭 사용해야 될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난해에 제가, 김병우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고 저도 부탁을 드린 것이 그래도 우리말화 할 수 있는 것은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도 용어의 선택을 신중히 고민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해봅니다.

19쪽 보편은 다문화 이해 교육자료 보급 사업이 있는데, 아주 적시적절한 자료 개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 이주한, 외국인을 위한 자료도 필요하겠고, 또 한국인이 외국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어떤 자료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단양교육청 교육장 정가흥

단양교육청 교육장 정가흥입니다.

저희 단양 32만 주민의 다문화 가족이 127 가족이 있습니다. 약 0.1%에 해당하는 인원이지만 이네들이 5년 후에는 약

400명의 학생이 초등학교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 대비한 대비책으로 이번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알렸지만 생활안내를 6개국어로 표시를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놨고, 그것을 다시 책을 만들어서 해당되는 학교 내지는 가정에 배부했습니다.

모국어로 이해하는 것이 교육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현황을 전부 다 300쪽에 해당되는 책자를 배부했습니다.

● 김부웅 위원

단양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자료가 되겠네요.

여섯 분 교육장님들,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보다는 아주 숙련되고 다듬어진 체제의 업무계획 작성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첨언한다면 아직도 도교육청 사업인지 지역교육청 사업인지 불분명한 나열식 사업책정이 많고, 또 외래어나 외국어가 남용되고, 지역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특화사업이 부실하다든지 사업추진자가 불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정본으로 인쇄할 때에는 제가 드린 말을 참고해서 더욱 알찬 계획이 일선 학교에 전달되기를 바라며, 또한 한 자리에 모인 자리니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제가 부탁드렸던 말인데 각종 행사 때에 교장선생님들의 예우 문제를 정착될 때까지 지도해 달라는 이런 부탁

을 드립니다. 얼마전, 3주 됐습니다. 행사에 참가했더니요 여전히 교장선생님이 올라가셔서 여전히 자모회장, 우체국장, 예비군중대장까지 소개하면서 거기에 온 교장선생님을 소개를 안 해요, 그냥 협의회장 정도만 하고. 그래 참 시간관계상으로 생략해 버리는데 참 마음이 안됐더라고요. 이어서 교육감님 올라가서 갖고 다 일일이 소개를 하는데, 이것은 교육감님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소개를 못할 그런 시간관계상 이런 거라면 초청을 하지 말자. 또 바쁜 교장선생님들이 이왕에 참석할 자리라면 소개를 못할 그런 자리는 가지 말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교장선생님들 예우를 해서 교권을 좀 올리는 이런 게 돼야지, 정말 남부끄러워요. 우체국장 소개하는데 그래 소개 안 되고, 이거 정착될 때까지 지도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위원님들이 지역교육청에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2년 가까이 죽 다녀보면서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 현안 사업 상의를 하고 이랬는데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별로 신통치를 않은 것 같아요. 일례를 하나 들어본다면 전체 교육위원님들이 나가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 어떤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을 내놓는데 나중에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전혀 협의된 이런 방향하고는 틀리게 운영이 되고 있던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거 괜히 갔다 왔구나, 밥 먹으러 간 것도 아닌데. 사정이 있어서 만약에 변경된다고 그러면 그런 거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서로 협조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사실은 도와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많이 위축이 됩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현장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때 거기서 건의된 사항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중에 또 얘기가 되면 아주 곤혹스러운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들, 좀 그런 일, 그러니까 교육위원님들이 방문할 때는 어떤 방문한 목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버돼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성영용

김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수웅 위원

교육위원 서수웅입니다.

각 시·군 교육을 맡고 계시는 교육장

님들, 평소의 철학이 담겨 있고 뛰어난 마인드로 주요업무계획을 짜 주셨는데 이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학년말에 교육성과가 대단히 높을 거라는 기대가 되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조목조목 시·군별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타이틀별로 전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필요한 부분만 한 분 한 분께 몇 가지 여쭙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타이틀을 제가 보면서 느낀 건데요, 이 앞부분에 부제 비슷하게 충주교육이 무엇을 지향하는가 썼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전부 써주셨는데 이것만 봐도 교육장님들의 철학이 차별화가 되더라고요, 묘하게. 다 특색이 있는데 한번 얼른 볼까요? 힘찬도약 미래를 여는 희망찬 제천교육, 그 다음에 미래를 함께 가꾸는 희망찬 진천교육, 미래를 움직이는 힘 괴산·증평교육, 사랑으로 꿈을 키우는 음성교육, 다른 것은 볼 것도 없이 이 부제를 보다보면 여 교육장님 골라보라면 대번 고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느꼈고요, 그 다음에 주요업무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명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실명제 이름 있는 것은 무언가 자세히 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조금 제 의견을 말씀드려본다면 기왕 쓰시는 거 전부 실명으로 쓰시면

좋겠다, 내년부터 참고로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용어해설 약자를 전부 다 붙여 주셨는데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단양교육청 한 군데만 돼가지고 올해 일반화가 됐구나, 이런 것을 느꼈는데 일반화가 된 것 중에도 특색이 있더라고요. 별첨으로 한 게 충주, 단양이고요, 매 쪽마다 보은은 그 옆으로 했는데 아주 그게 보기가 좋아요, 또, 그래서 ‘아, 이것도 하나의 사례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단에 하는 데가 진천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괴산은 해당 다음에 바로 밑에 했더라고요. 그렇게 친절하게 했음에도 우리가 보기에는 보은이 돋보이더라,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그 다음에 주요행사계획을 우리 부의장님이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 캘린더요, 그것이 진천과 단양이 참고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음성 교육장님께서는 제가 여쭙보겠습니다. 음성교육 맨 뒤쪽에 음성교육 행정서비스 현장이 붙어 있네요. 그거 음성 교육장님께서 부임하시고 제작을 한 겁니까, 아니면 전부터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 음성교육청 교육장 박인수

음성 교육장 박인수입니다.

전에 우리 교육청에 있는 겁니다.

● 서수웅 위원

그럼 다른 시·군교육청도 있습니까?

(관계관 석에서 “예” 하고 말함)

거기 써놨는데 특별한 것 같이 느껴져서 제가 여쭙봤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청주시 교육청에서 역점사업으로 독서지도를 하는 게 돋보여서 많이 질문이 오고갔는데 이번에는 각 시·군 공히 보니까 1570, 1530이더라구요. 그래서 좋은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좋다. 그런데 이것을 엄밀히 지적을 해본다면 매일 아침 15분씩 1년에 70권 읽힌다, 이것은 지향하는 목표인 것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너무 많이 잡은 것이 아닌가. 괴산은 보니까 2020이예요. 20분씩 해서 1년에 20권. 어찌보면 20권도 사실 만만치 않은 거다. 그냥 처음부터 쪽 넘기고 읽었다 한다면 모르지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천 게 그렇게 돋보이더라구요. 아주 간단히 썼는데 이걸, 사제동행 10분 아침 독서, 그냥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 여기서는 학교마다, 담임마다, 아니면 학년마다 목표치를 정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예감이 드는데, 제가 잘못 생각한 건지 이것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똑같이 잘한 데를 베껴놓는 것은 참신성도 없고, 보는 사람이 그렇더라, 그런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역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감사의 내실화를 통한 신뢰

행정구현이라는 항목이 다 있어요. 어느 교육청마다 다 있는데, 지도예방 중심의 행정감사 실시 실적이라는 게 시·군마다 있는데 보니까 전부 이렇게 표현했어요. 감사 예고 몇 건에 현지조치 몇 기관 몇 건, 이런 식이예요. 또 행정처분 몇 건, 재정처분 몇 건, 현지조치 몇 건, 행정조치 몇 건, 전부 이렇게 나왔어요 결과가. 그래서 제목은 지도 예방중심의 행정감사실시라고 했음에도, 또 그 원 제목에 보면 항상 지도예방 중심이라고 해놓고 지도한 게 아니라 적발한 게 꼭 나온단 말이야.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를 갔던 시·군 교육청에는 분명히 당부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감사하면 지적당하고 어떤 조치당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방향을 전환하자. 어찌 거기 실적에 감사 우수사례가 좋은 게 있더라. 그래서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표창했다든지, 칭찬했다든지 왜 이런 내용은 안 나오나 이런 아쉬움을 갖는데, 혹시 교육장님들 동의하실 의사 없으세요? 우리 교육계 전체 사기양양을 위해서도.....

(관계관 석에서 “동의합니다.” 하고 말함)

● 충주교육청 교육장 손병기

동의하고, 충주교육청은 작년에 4개교 표창하고, 초·중 이렇게 나눠서 직급별 선생님, 또 일반직 해가지고 표창을 했거

든요. 교육장 표창.

● 서수웅 위원

그런데 실적에 왜 안 썼어요?

● 충주교육청 교육장 손병기

늦어가지고.

● 서수웅 위원

그걸 시·군 교육청별로 실적도 있으면 좀 자극을 받고요, 제 생각에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까 청주한테 제가 했는데, 청주는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12월 달에 감사결과 우수기관 한 기관, 우수 공무원 두 사람 표창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경직되게 한 학교만 하려고 그러느냐. 여기 주요업무계획이 수백 가지인데 이 수백 가지 중에서 정말 이 학교는 뛰어나다고 그럴 때 그 영역별로 칭찬하고 교육장님이 격려해주고 포상하면 어떨까. 그런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가능한 내년 주요업무 실적에는 그런 것도 나오고, 제목과 어울리는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기본학습 제로화 추진이 전부 되고 있는데, 저 이거 쉽게 얘기해서 제로화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공감하시죠? 제로화가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되지. 그러나 제로화를 지향하자. 그래서 보면은 책임지도제라고 다 쉬운 말로 되어 있는데, 진천의 경우를 보니까 기초기본학습 부진학생 지도수당을 40시간에

100만원, 특별보충과정 지도수당 20시간에 50만원씩 학교회계로 책정하는 거죠? 이것이 1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을 들여서라도 제로화가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렇게 돈까지 들여서 하는데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이것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돈 안 받고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아마 교육장님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안 한다는 놈 쥐봤자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것을 찾아가지고 공동경비로 하자라는 학교도 있다고 하는 정보를 듣고 있는데, 참 이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나타내기 위한 이런 게 아니라 좀더 현실적으로 어떤 성과가 날 수 있는 교육장님들의 특단의 아이디어를 내서 성과를 올렸으면, 그런 바람으로 그런 생각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 예방 제로화도 있죠. 이것은 교육감님의 선거공약에나 나 움직인 그런 타이틀인데, 그 제로화도 이것도 지향을 하지만 학교폭력 사실은 우리 어렸을 때도 있었어요, 요새 폭력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것 중에서 아주 재미있는 거, 작년에 제가 지적한 것 중에 친구사랑 우정의 날 작년에 말씀을 드렸더니 많이 조금씩 변모한 점이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로 정한 데가 진천, 음성이고요, 더 이렇게

늘어나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날을 많이 정한다고 해서 폭력이 줄어들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도 아까 감사와 관련해서 각 학교단위로 보게 되면 어느 학급 담임선생님이 정말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있어요 분명히. 예를 들면 그 학급 어린이들의 생일날을 우정의 날로 정해서, 그 생일을 맞이한 아이가 그 날만은 전 학급 어린이들이 그 친구를 위해서 뭔가 우정을 베푸는 겁니다 갖가지 방법으로. 예를 들면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색 있는 거 하나 봤어요. 음성교육청에서 미·인·대·칭 운동, 참 재밌어요. 그죠? 미·인·대·칭 운동. 봤더니 미소짓고, 인사 잘하고, 대화하고, 칭찬하는 운동이네요. 이런 것도 여 교육장님다운 세심한 언어사용이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이런 언어사용을 이렇게 하려고 애쓰듯이 폭력예방을 위해서도 분발하시고 많은 실적 거양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제가 선임 교육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830 운동이 뭔지 아세요?

● **충주교육청 교육장 손병기**

잘 모르겠는데요.

● **서수웅 위원**

교육장님들이 다 결재하셨는데도, 기억하시는 교육장님. 1830 운동. 각 교육청

마다 다 하는데.

이게 아이들 손 씻기 운동 지도인데, 하루에 여덟 번씩 한 번에 30초씩 손 씻기 지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육장님들이 내신 여기에 그게 다 있습니다. 5-3-2에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을 왜 여덟 번씩 손 씻기 지도를 한다고 전부 통일했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야외 학습을 하고 들어오면서 씻는다든지, 밥 먹기 전에 씻는다든지, 간식 먹기 전에 씻는다든지 하면 모르는데 1830 대단한가 봤더니 전부 똑같이 1830이에요. 이것도 혹시 교육청에서 나갔나. 어느 학교를 보니까 손 소독기를 교육청에서 사줬더라고요. 급식시간에 손 소독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비싸서 그런지 몇 학교 안돼요. 교육장님들, 이것보다는 학교에 어느 학교만 줄 게 아니라, 혜택을, 예산을 잘 활용해서 각 학교 전부 손 소독기를 사주는 게 옳지 않은가 차라리 이것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교육청 단위로 환경오염측정기라는 것을 다 사줬다고 도교육청에서 확인했는데 교육청 단위로 다 가지고 있습니까?

(관계관 석에서 “예, 있습니다.” 하고 말함)

그럼 여쭙보겠습니다.

환경오염측정을 의뢰해서 1년에 한 번 이상 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공문이 나가 있죠? 교육청에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거.

그런데 그거 오염측정기가 있는데 왜 학교마다 50만원, 70만원, 80만원 들여가면서 왜 용역을 줘서 그걸 하죠? 환경오염측정을.

● 음성교육청 교육장 박인수

용역 안 주고 교육청에서 나가서 하는데요.

● 서수웅 위원

그래요? 제가 몇 학교 샘플로 했는데 각 시·군 다 하던데. 이게 저기로 나가 있어요. 보건교육지침인가 거기에 나가 있어요, 공문이. 그래서 내가 여기에는 없지만 혹시 그거 살펴보고 그런 행정 지시가 있었는가 보십시오. 보건선생님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만이 많아요. 형식적으로 하면서 50만원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표집한 학교는 여섯 개 학교를 했는데 다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것이 있으면 조금 현실적으로 바로 잡아서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아이들 건강을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늦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세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자체로 교부돼 가지고 그중에서 20%를 교육경비

로 지원하도록 법제화된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여기 신문에 나온 건 보니까 이런 거예요. 각 교육청에서는 왜 20% 주기로 되어 있는데 왜 안 주느냐고 항의를 하고, 지자체장들은 그것은 권장사항일 뿐이지 우리 자립도도 낮은데 교육지원 안 해도 된다고 버티는 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얘기인데. 그렇다면 충북에서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는데, 이게 자칫하면 교육장님들의 능력이 똑같은 좁은 도내에서 이거 비교되게 돼 있단 말이죠. 얼른 법을 자세히 알아보신 다음에 20%를 주게 돼 있으니까 어떤 관계를 맺든간에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하시는 게 옳겠다, 그래서 힘을 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알아보시고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좋은 교육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성영용

서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인사를 빼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장님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국민들한테 가장 큰 관심거리가 뭐냐고 물으면 첫째가 경제회생이라고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경제가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젊은애들이 마음놓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가 좀 공교육을 활성화해서 사교육비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아주 사교육비 때문에 가정경제가 주름이 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교육청의 가장 큰 업무가 뭐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력을 신장시키는 일이다. 실력 있는 인재를 양성해 주는 일이다. 각 교육청에서도 주요업무계획과 특색사업을 보면 학력신장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재를 해 주셨어요. 참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실례로 충주교육청을 보면 좋은 수업을 위해서 교과교육연구회 활동을 강화하고 선생님들의 사기가 높아져야 학생들에게 열정을 쏟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신규교사에 대해서 소명식을 거행하는 등 대단히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또 논술교육을 강화하고 중간 기말 성취도 평가를 위해서 16만 문항을 제공한

다고 합니다. 대단히 의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천도 보니까 교과별 학력제고 지원단을 운영해서 학생들 학력제고를 위해서 애쓰고 있고, 괴산·증평에서도 학력신장 기반 구축을 위한 독서교육 권장, 진천교육청에서도 영재교육원 활용을 통해서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하겠다, 뭐 단양교육청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학력신장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는 거 대단히 든든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학력평가와 시험을 자주 보는 것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교원단체 여러 사람들 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고 또 저와 자주 만나는 학부모들의 공통된 의견은 어떤 방법을 쓰든지 학교에서는 학력평가를 해서라도 학생들의 실력을 올려달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달에 중학교 신입생을 상대로 해서 학업성취도 평가가 실시가 됐죠? 그 다음에 또 3월에는 전국 연합학력진단평가도 있었고, 아마 금년 8월 10월 사이에도 도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또 중학교 전국연합평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감춰진다고 해도 결국은 나타나요. 또 아마 머지 않아 공개하라고 그러면 공개 안 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랬을 적에 암만 될 다 잘했어도 내 지역의 학생이 학

력이 저하됐다고 그러면 그 교육이 잘했다 소리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쓰든지 학생들이 실력향상을 위해서 일선 교육청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인구 감소가 되는 시·군 교육청에서 학생수를 늘리고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명문학교를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다. 제가 거창고등학교 몇 번 가봤는데 교육시설 엉망입니다. 교장실을 가보면 몇 십년이 됐는지 책장이 꾸불꾸불해요. 교실도 돌아보니까 엉망이에요. 그래도 전국적으로 모여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디 보도를 보니까 학력 나쁜 공립 학교는 주지사가 폐쇄한다고 그러니다. 2회 이상 경고해가지고 그 다음에도 더 나쁘면 학교를 문을 닫게 하겠다는 겁니다. 왜, 주민의 세금으로 학교를 세워서 선생님들에게 수업을 맡길 때는 타 지역 학생들보다 우수하게 가르쳐달라는 주문인데 왜 떨어지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학력신장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교육장님들께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설사업에 관해서 한 가지만.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견실한 시공을 정착하겠다 하는 게 여러 교육장님들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를 5억원 이상 되는 것은 공동 감리를 하고, 외부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공동 감리를 하고, 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참 좋은 말씀입니다.

청주, 충주, 청원 같은 큰 데는 학교 신설요인이 생기고, 그렇지 않은 교육청에서도 급식실을 현대화한다든지 증·개축을 한다든지 학교를 새로 손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육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사항을 제가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학교 위치 선정, 물론 요새는 학교부지도 다 토지 정리할 때 떼어 주니까 우리가 선택권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어진 땅에서 교사를 배치하는 문제, 그것을 저희들이 몇 번 가보면은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드는 게 있습니다.

실례로 몇 년 전에 제천시 청풍면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통합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제천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에 올린 서류에 의하면 중학교 자리로 초등학교를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교육위원님들이 다 가보고 이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중학교 자리가 산 속으로 폭 들어가 있고, 음산하고 북향으로 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었더니 교육청 답변이, 주민들 전체가 그렇게 원합니다, 아니라고 반대 좀 하시죠 그랬더니, 당신네들은 몇 년 있으면 떠날 사람이고 우리는 여기 살 사람인데 왜 우리 의견 존중 안해 주느냐 이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강력하게 그건 아니다 해서 초등학교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때 거기에 근무했던 분들이 저한테 지금도, 참 교육위원님들의 탁월한 안목에 감탄했습니다. 그때 안 그랬으면 음산한 데다가 학교를 질뻔한, 거기 초등학교에 가보면 아주 경관도 높고 양지바르고 우선 남향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 어제 단양교육청에서 가곡초·중 통합에 대한 조감도를 저희들한테 가져왔습니다. 얼마 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교육위원님들 전원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 교육청에서 제시했던 안도 봤고, 우리가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위원님들 주장이 첫째는 남향으로 질 것, 또 강당과 같은 것도 동선이 짧을 것, 가능한이면 외형보다는 실용을 해 줄 것, 이렇게 주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것을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 서향으로 모든 것을 다 배치를 해놨어요. 학생수 한 70명밖에 안 되는 초·중에 39억 5,000을 투자를 합니

다. 그런데 현재 있는 중학교 교사는 남향으로 아주 잘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 언덕배기에 지금 전부 새로 배치를 하게 됐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는 강가에 바람에 서북풍으로 불면 문도 못 엽니다. 창문이 그저 문 열려고 하면 저절로 닫힐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발상을 하는지, 물론 주민이 우리가 쓸 학교인데 너희가 잔소리를 하느냐, 이런 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도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어려움이 있겠는데 이렇게 학교의 교사를 배치하는 문제는 좀 심각하게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지을 때 공사의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 지 10년도 안 되는 새 학교가 물이 줄줄 새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보면 1년에 수십 억 씩 방수비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몰라요. 그런데 학교의 준공 기념에 가보면 건설회사 사장한테 잘 짓고 수고했다고 감사패를 대단하게 주거든요. 뭘 감사합니까. 부실공사 새서 비가 줄줄 새고 하는 걸. 심지어는 이런 학교를 봤습니다. 위에 옥상을 만들었는데 그 바닥고 구멍, 3cm 배수구멍이 높아요. 그러면 그걸 물이 3cm는 고인다는 얘기에. 그걸 깎아내면 저절로 흘러 들어갈 걸, 그걸 나 같은 사람도 보면 알겠는데 그걸 왜

못 봤을까. 그래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의 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과 교사를 배치할 때 좀더 심각하게 고려해서 한번 지으면 50년 이상 가지 않습니다. “저거 누구 있을 때 저거 지어놨어, 아이구 참.....”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성영용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 위원

정무 교육위원입니다.

각 교육장님들께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세우시느라고 고민하신 흔적이 아까 보고 때 들으니까 많이 옛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는다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시·군 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을 놓고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먼저 11개 시·군 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을 쪽 펴놓고 표지부터 봤습니다. 이 표지가 시대감각에 맞고 옛말로 촌스럽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보니까 다

들 잘돼 있지만은 한 예를 들어서 여기 충주교육청 것을 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뭔가 신선해야 되겠다, 구태의연하지 않고 눈에 질리지 않고 눈에 확 들어오는. 충주교육 하니까 ‘베리 굿’ 좋은 말인 것 같아서 그렇게만 봤더니 뒤에 ‘Good 충주교육’이라는 해설이 있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약자가 있었고, 활짝 열린 지구촌을 향하여 우리의 푸른 꿈 마음껏 펼쳐나가자, 이런 좋은 뜻이 담겨 있는, 그래서 다른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이것이 주요업무계획인지는 어느 누구든지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떤 교육청은 크게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이렇게 타이틀을 내 건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표지부터 세련되고 우리 충북교육이 촌스럽지 않게 어디다 내놔도 이런 면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각 교육청의 기본방향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제가 유인물을 교육장님들한테 나눠드렸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교육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지표, 교육비전, 교육시책, 특화사업 이렇게 구분돼서 나와 있는데, 제가 얘기한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교육지표는 똑같아도 좋습니다. 달라도 좋고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으니까. 말이

틀리지 목표는 한쪽으로, 종교가 여러 개 다르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같습니다. 그것마냥 우리가 교육을 달리해도 교육지표가 똑같다면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과 동일하든지 조금 달리해도. 그렇지만 충주교육청에서는 교육미션이라고 말을 바꿔서 했는데 그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교육비전이라고 하는 데 보면은 "Edu★ Star 2010" 이것은 도교육청 비전입니다. 그런데 그거와 글자 하나 안 틀리게 앞에 충북이라는 말까지 똑같이 한 교육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 교육장님들의 나름대로의 철학이랄까 안목이랄까 이런 것이 포함된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압축된 그런 용어인데, 똑같은 말이 나온다는 것이 저는 이상하게 생각을 했고, 그 밑에 보면 드림 청원교육, OK-Edu 옥천, 또 뭐 근본을 이어가는 영동교육, 또 미래를 움직이는 힘 First-Edu 음성, Edutopia 단양 실현,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용어 한마디에 그 교육장님의 교육철학이 들어 있는 것 같아서. 좀 뭔가 창의성이 있고, 좀 좋은 아이디어를, 이게 아마 교육장님 혼자 안 하시고 과장님이나 장학사님들 전부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좀더 연구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시책이 대개 5대 시책이 나

와 있는데, 그것은 대동소이합니다 어느 교육청이건. 그렇지만은 우리가 교육적인 감각, 시대적인 감각에 빨라야 합니다. 지금 새 정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경제교육하고 또 우리 교과분야에서는 교과몰입교육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교육시책에도 작년에 하나로 했으면 올해는 둘, 셋 정도로 해서 강화돼서 나와야 하는데 작년 거하고 비슷하고, 조금 강화됐다고 보는 데는 한두 군데, 음성하고 어디만 조금 더 강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그런 교육시책에 대해서 민감하게 빨리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특화사업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경제살리기를 하면 각 지역의 특산품이나 공산품을 이용해서 경제살리기운동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괴산·증평에서 청결고추, 누구나 다 압니다. 또 영동하면 감, 그러면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 고장의, 이것도 우리 교육과정의 최우선으로 해서 지역화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나와 있는 교육청이 몇 군데 없습니다. 제가 죽 보니까 몇 군데 나와 있기는 나와 있지만 그냥 옛날과 똑같은 식으로 했는데 그런 것 좀 바꿔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충주교육청에 대해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인사말을 꼭 해야 했는데 한두 마디 주요업무를 질의를 하는 것보다 인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인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소년체전이 한 두 달 열흘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소년체전이 한 4월 4일, 5일 한다고 하니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 교육장님들이 소년체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에 노메달 소리 안 들으려고 발버둥치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참 교육장님들이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지도교사라든지 선수를 잘 만나야 하는데, 어떨 때는 뜻밖의 좋은 선수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속적인 노력을 하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충주에서는 작년에 금메달 6개, 은메달 7개, 동메달 6개, 무려 19개 메달의 큰 수확을 거뒀는데, 금년 37회 전국소년체전 전망은 어떤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비추어서.

● **충주교육청 교육장 손병기**

작년에 6개 땀는데 올해는 금메달을 5개는 자신 있고요, 이제 목표는 8개를 했는데 5개는 충주에 김민수 800m하고요 조

정에 충일중학교하고 칠금중학교 여자, 또 사이클의 주덕중학교하고 복싱, 역도의 미덕중학교, 이렇게 5개는 확실합니다.

● **정무 위원**

교원의 강화 훈련을 통해서 잘 했을 테지만은 앞으로 남은 기간이 중요합니다. 각 지정종목이나 육상경기대회를 둘러보고 시고 격려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충주교육청 교육장 손병기**

예, 알겠습니다.

● **정무 위원**

다음 업무계획서 18쪽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교실수업 개선은 우리 교사들의 수업기술 향상에 따른 것입니다. 교실수업이 잘 되면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수교사 반 애들은 학력제고와 직결되는, 학교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교육 분야의 수업스타를 발굴하고자 수업연구대회 발표를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수업스타들에게는 승진가산점도 주고, 해외연수 등 아주 큰 특혜를 주고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 특혜가 아주 미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큰 혜택을 주어서 우리 모든 선

생님들이 나도 한번 수업스타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었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하면 누구나 수업스타가 되려고 하는, 어느 정도 혜택을 어떻게 주면 유인책이 뭐라고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충주교육청 교육장 손병기**

충주 교육장 손병기입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1등급이 세 명이 되고 그랬는데요 그 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장학컨설팅을 하고 연구수업이나 또 장학지도 시에 수업할 선생님들 1 대 1 멘토링도 하고, 또 외국여행 추천했다든지 스승의 날 추천할 때 장관상이나 또 대통령 표창할 때 최우선으로 하고 그러거든요. 교육청에서는 특별하게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그 선생님들 상 탄 분들을 교육청에서 모아 가지고 저희들 교육청 매월 월례조회 때 시상을 하고, 식사를 하고 이런 거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 **정무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장님들께서 수업스타를 더 우대해줘야 되겠다는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황영조 선수가 바르셀로나에서 마라톤 우승을 하니깐 그 사람을 국민 영웅으로 해서 코오롱 회사에 이사로 특채

를 해서 국민 영웅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우리 수업스타들도 수업스타라는 것을 따기만 하면, 우리 교육자 중에서는 최고의 별처럼, 말그대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대를 해줘야 되겠는데 교육장님들도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면 언젠가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려서 수업스타를 장학사나 연구사로 특채하는 그런 것까지 한번 제가 건의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장님들도 수업스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이 수업스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계획에서 56쪽에 시설사업으로 90여 억원을 들여서 충주 학생회관을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충주교육청 교육장 손병기**

예

● **정무 위원**

내년 3월 개관 예정이라고 해서 반가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회관은 청소년들의 소양을 증진시키고 소질을 계발하고 정서를 순화시키는 등 전인교육에 기여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특별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사람으로 기르는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설머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은, 그러나 우리가 아까 이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우에 비추어 보면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여러 부분의 하자가 나타나고, 공사가 잘못됐든지 부실하다든지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철저한 감독과 50년 후, 100년 후를 대비한 충분한 마인드를 갖고 감독하리라고 믿지만은 관계자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설계 용역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을 조금 말씀을, 규모라든지, 위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충주교육청 교육장 손병기**

충주 교육장 손병기입니다.

작년에 교육위원님들께 다 보고도 드리고, 또 그 동안에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했는데 갑자기 이 계획이 변경이 돼 가지고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4일까지 설계를 다 받았는데 교육감님이 특별지시가 있어서 북부지역 영어마을을 거기다가 설치해봐라 그래서 다른 데다가 찾아보니까 특별한 데가, 적당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관리파트하고 가서 했는데 우리 학생회관애다가 같이 부설을 해서 그 3층을 4층으로 올려가지고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37억 정도를 해

가지고 해서 지금 이제 설계가 중단이 되어 있고요, 3월 4일날 착공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복합설계에 들어갈 단계에서 지금 정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5월달에 추경에 그 37억을 북부 영어마을을 단양, 제천, 충주 이렇게 3개 시·군에서 활용하는 그런 저기인데, 그것이 한 37억이 추경에 통과가 되면 6월, 7월 두 달간 재설계를 하고요, 그래 8월달에 입찰공고를 해서 9월 1일이후에나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6개월이 지나서 내년 9월.....

● **정무 위원**

내년 3월이 어렵겠네요.

● **충주교육청 교육장 손병기**

준공이 불가능하고요, 법적 시기적으로요. 그래서 그것을 복합으로 해서 지금 한 층이 더 올라가서 3층이었던 거가 4층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정무 위원**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충주교육청 교육장 손병기**

에

● **정무 위원**

다음에 제천교육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웅천 교육장님의 이번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신데 어쨌든 전 교육장님께서 임기 동안 잘 하셔가지고 큰 업적을 남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제천교육청의 무궁한 발전을 빌겠습니다.

취임하신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 제천교육청 교육장 전응천

감사합니다.

● 정무 위원

다음에 진천교육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 하면 다들 잘 아시다시피 생겨 진천 해가지고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조건이 최고의 미질로 진천쌀이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천 하면 김유신 장군 탄생지, 태실, 길상사, 뮌 석장리 고대 철 생산지, 진천농교, 정송강사 등 아주 역사적인 유적지가 많아서 문화관광지로 앞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됩니다.

업무계획 65쪽에 보면 향토사랑 3운동을 전개하고 계신데 그중에 2번 문제 우리고장 찾기 운동 전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발굴되지 않거나 탐구되지 않은 조상의 얼, 또는 숨은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고장 찾기 운동을 전개한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내용인지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 진천교육청 교육장 최철환

진천교육청 교육장 최철환입니다.

우리 고장 사랑 3운동은 우리 고장으로 알기 운동은 우리 고장에 대한 지금까지 쪽 향토사랑에 대한 생겨진천을 알게 되는 거고, 우리 고장 찾기 운동 전개는 우리 고장 내 지금까지 돼 있는 농다리 등 유적지가 있는데 찾지 않은 유적지가 있으면 찾아보자는 이런 운동입니다.

● 정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돼서 그래서 괴산·증평 생략하겠습니다.

음성교육청도 생략하겠습니다.

단양교육청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단양교육의 인재 육성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가홍 교육장님과 단양 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단양은 단양팔경, 또 석회암동굴, 단양 옥쪽마늘, 제 머리에 퍼뜩 떠오르는 게 이런 게 떠오르고, 작년에 제가 단양교육청에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김동성 군수님을 비롯, 지역의 교육사랑이 대단한 것을 느꼈고, 교육특구 추진 프로젝트가 특별히 해서 단양지역에 앞으로 큰 발전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요업무계획 54쪽에 학력 및 특기신장에 방과후 학교 운영을 알차게 운영해서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의 신뢰 회복, 그리고 평생교육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동양일보 신문을 보니까 8면에 산간벽지 맞춤형 프로그램이라는 제하 밑에 2008. 방과후 중심학교 운영이라는 기사가 게재됐고, 오늘도 중부매일에 보니까 기사가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간략하게만 소개해 주세요.

● 단양교육청 교육장 정가흥

단양교육청 교육장 정가흥입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틀은 공교육의 신뢰로써 농촌의 어려운 열악한 교육환경을 우리 공교육의 신뢰 쪽에서 보충해 주자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방과후 학교는 군에서 6억 5,000,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6억 5,000 해서 약 13억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심학교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중심 거점학교를 운영하면서 인근에 흩어진 학생들을 4대의 버스로 수송을 책임지고 있고, 저녁 5시 반부터 9시까지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어상에 Pie Room이라고 나온 것이 생소해서 말씀드리면 방과후 학교 등에 대한 전체적인 틀 속에서 보충하는 활동으로써 초등학교 학생들의 보육활동과 도우미 활동

등을 통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력을 도와줄 수 있는 Pie Room의 도우미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하나의 역할이고, 또 방과후 학교가 주로 특기적성이라고 하지만 물론 핵심적인 것은 교육에 대한 학력 신장에 역점을 두고 있고, 주말학습을 통해서 국·영·수, 5대 교과에 대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 학교 등이 어려운 점이 있다면은 지역의 관심이 굉장히 고조된 것만큼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더 높은 재정지원을 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리들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과후 학교의 일환으로 재미난 영어캠프를 약 1억 5,000 정도의 예산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생수는 약 800명 정도를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서울 등지에서 방학 동안에 자녀들을 데리고 아파트에 와서 기거하면서 영어캠프를 참가를 했습니다.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작할 때 부모를 상담해왔고, 끝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물어봤을 때 다시 오고 싶느냐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에는 더 많은 애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는 얘기를 듣고서, 아, 재미난 영어캠프가 성공했다, 또 방과후 학교가 성공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많은데 타임이 오버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성영용

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곽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정수 위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을 하나씩 드렸는데, 이게 우리 도교육청의 행사 캘린더입니다. 또 지금 보면 단양교육청이나 진천교육청이 그 뒤에 캘린더를 잘 넣어서 같이 참고해서 내년도, 또 금년도 행정감사할 때, 이게 간지로 끼우면 뒤에다가 끼우면 그렇게 일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아마 그 일목요연하게 행사를 볼 수 있어서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오늘 각 지역교육청마다 나온 얘기 중에서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원어민 강사 문제, 원어민 교육문제가 많이 나와서, 그 문제에 관해서 사실은 DVD를 준비해서 같이 시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지나서 그냥 유인물을 하나씩 드린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나온 영어 공교육 완성 실천 방안, 그 내용을 한번 교육장님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앞으로 미래 우리 한국의 영어교육의 로드맵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만명, 중·고등학교 1만 3,000명 해서 2만 3,000명의 영어로 수업하는 교사의 채용계획 같은 것도 거기 들어 있고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제가 오전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새로 교육장이 되신 분이 여러 분 계셔서 그 분들에게 좀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시고 그래서 자기 수하 직원들의 발이라도 닦아줄 그런 각오 가지고 교육장 하시오 하는 그런 뜻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냥 말로만 전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충주교육청에 관한 얘긴데요, 소명의식 축하식을 작년도에 상당히 감명 깊게 보고, 금년도에는 여러 교육청에서 그걸 좀 벤치마킹을 해서 그 행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욕심을 냈었는데 이 주요업무계획에 보니까 어느 교육청도 보니까 그것을 벤치마킹해 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타 교육청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새로 시작하는 교사들에게 좀 자부심도 일러주고, 또 소명의식도 넣어주고 그런 것이 좋은 게 아닌가. 그

런 좋은 거면 서로 공유하는 게 사실은 업무보고의 중요한 목적들이지 않느냐, 그런 것들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걸 뭐 우리 교육위원 들끼리 평소 얘기하면서 우려했던 부분인데 괴산·증평교육청 얘기입니다. 괴산·증평교육청 관내에 아마 지금 중등학교에 소규모 학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물중학교, 송면중학교, 장연중학교. 그런데 거기 앞으로 보면 초·중·고로 갈 수 있는 그런 로드맵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청안중학교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안중학교의 현재 학생수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아시는 대로 소상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장 김세영

괴산·증평교육청 김세영입니다.

청안중학교에 현재 학생수는 1학년이 4명, 2학년이 6명, 3학년이 3명 해서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청안중학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금년 3월에 학교를 방문을 해서 교실을 직접 가봤습니다. 참 심각합니다. 3학년 같은 경우 3명이 수업을 하는데 직접 교실을 1, 2, 3학년 들어가봤습니다.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장, 또 자모회장, 또 그 지역의 면장님, 교장선생님 해서 그 학교를 어떻

게 할 것이냐는 대책회의도 열었습니다. 지역에서는 학교를 1면 1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유지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확정적으로 결론을 아직 못 내리고요, 금년 상반기 중에는 어떠한 결론까지 도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곽정수 위원

지금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 그걸 이렇게 저렇게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지역 같으면 1면1교 하면서 초·중 통합학교를 만든다든지 나름대로 그 자구책이 있는데, 유독 청안만은 사실은 그게 사립학교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장님이 고민도 많으실텐데,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요 공군사관학교 생도를 양성하는데 1억 2,000, 육사가 1억 1,000, 해사가 1억, 그렇게 신문에 난 것을 봤어요. 그리고 파이롯트를 하나 만드는데 거의 20억 정도가 드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청안중학교 제가 학생 숫자하고 그 들어간 돈을 해보니까 7,000만원이 넘어요, 1인당 투자액수가. 그러면 사실 외국 유학보내는 비용보다 더 들게 돼서 이게 암만 국고라고 그러지만 이게 빠른 해결이 필요

하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돼서 같이 교육장님하고 고민해보고자, 이것을 한번 문제를 서로 공유를 해보고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장님, 하여튼 현명한 조속한 뭔가 답을 낼 때가 된 것 같은데 기대를 하겠습니다.

부담스러운 것 질문했나요?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장 김세영**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 **곽정수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성영용**

곽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제가 2008년도 주요사업 보고를 받으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6일날 우리 교육감께서 기본이 바로 선 충북학생만들기 해서 기자회견을 가지셨습니다. 이 회견은 인성을 바탕으로 한 학력제고를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4개 항목을 얘기하셨는데요, 예절, 친절, 질서, 청결, 절제 등 5대 덕목실천운동하고 둘째는 친구와 함께 하는 야영훈련, 셋째는 찾아가는 감동생활지도, 네 번째는 기본생활지도 범도민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각 교육청에서 이번 이 주요업무 계획에 많이 내포돼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 하는 그런 교육청은 한 군데도 오늘 말씀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제시를 해 줬으면 하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주 교육장님 대표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보십시오.

● **충주교육청 교육장 손병기**

충주 교육장 손병기입니다.

저희들도 교육장회의에서 그 업무지시를 받았는데, 오늘 보고드리는 것은 그 전에 돼 있던 기존의 교육청 업무보고에 준하다보니까 그 점이 소홀히 된 점을 미처 수립을 못해서 사과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바른품성을 기른다든지 또 생활지도를 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들 충주교육청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별도로 세웠는데 오늘 보고드린 데는 누락이 돼 있는데 그것을 알차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성영용**

좋은 계획들 교육장님들 세우셔서 교육감의 교육시책에 대해서 최대한 같이 부응해서 충북교육이 잘돼 나갈 수 있기를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및 질의와 답변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신 교육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육장님들께서 보여주신 적극적인 관심과 의욕적인 실천의지를 통해서 충북교육이 한층 더 힘찬 도약을 하는 한

해가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교육위원 모두는 교육장님들의 알찬 충북교육 실현을 위한 열정과 노력에 힘을 실어드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열심히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주교육청 등 6개 지역교육청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 42분 회의종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성영웅, 부의장 곽정수,
위원 김병우, 김부웅, 서수웅, 이상일, 정무.

0 출석공무원 : 11명

충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충주교육청 교육장 손병기,
제천교육청 교육장 전응천, 청원교육청 교육장 김윤기,
보은교육청 교육장 김중규, 옥천교육청 교육장 조남수,
영동교육청 교육장 정구석, 진천교육청 교육장 최철환,
괴산·증평교육청 교육장 김세영, 음성교육청 교육장 박인수,
단양교육청 교육장 정가흥.

